2017 AUTUMN VOL. 100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메세나**

예술이
기업가치를 창출하다

+ THEME STORY

당신의 봄
너를 기다려 봄
"다녀왔습니다~"
너의 이 말 한 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집에 오는 길이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까
엄마 마음 같아서는
맨날 데리러 가고 싶은데-
오늘도 차 조심하고,
집에서 만나~ 사랑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용품을 무상 지원하는
해피스쿨 캠페인
삼성화재 FC와 임직원, 세이프키즈코리아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지원합니다
삼성화재 해피스쿨
삼성화재와 세이프키즈코리아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및 생활에 놓은 학교를 선정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과 용품, 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Contents

THEME MECENAT
예술이 기업가치를 창출하다

메세나 통권 100호
발행일 2017년 9월 8일
발행인 박삼구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표지 일러스트 김남희

홈페이지
한국메세나협회 www.mecenat.or.kr
기업과 예술의 만남 www.aandb.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4 SCENE 예술이 기업가치를 창출하다

6 COLUMN 현대 경영의 키워드, '예술적 개입을 통한 창조적 충돌'

10 CONVERSE '경영예술'의 시대가 도래하다
기업가치와 예술가치의 접점을 생각하다

14 MECENAT PEOPLE 한국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역사를 말하다, 디자이너 김현

SPOTLIGHT MECENAT

18 100th MECENAT 계간 〈MECENAT〉가 100호를 맞이했습니다!

22 WITH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 〈MECENAT〉가 걸어온 길

24 HOT ISSUE 2016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2,025억 원,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발표

26 MECENAT STORY 평범한 시민들이 이루어낸 근대의 예술 후원

30 MECENAT SCENE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국악 즐기기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달콤한 국악
봉사를 통해 얻어가는 것이 더 많아요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 FGI
나만의 주제를 만들어라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Intensive Art Camp
'한국의 미(美)를 찾아서'
한화예술더하기 여름방학 특별 수업
오페라 선율로 건네는 희망의 선물
종근당, 오페라 희망 이야기-키즈오페라
두 지역의 청소년들이 만나 하나 된 소리를 만들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2017 음악캠프
해금 배우기가 물놀이보다 더 재미있어요
크라운해태 국악캠프
일상을 예술로 물들이는 아트 챌린저들의 새로운 도전
케이옥션 아트 챌린저

41 MECENAT NEWS 제5회 메세나 회원음악회
A&B포럼 '예술 창작 작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사례'

42 HUMANITIES 書齋 소공자에서 피아노계 총아로, 차세대 거장을 예약하다
–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ON MECENAT

46 RELATIONSHIP 미래의 음악거장을 키웁니다
KT&G 장학재단 '메세나 음악분야' 장학생 2번째 선발
날것의 예술,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예술공동체
삼성문화재단&로사이드

48 MATCHING FUND 뜨거운 여름 水로 물들다 물 위의 춤 〈소무〉
아세코코리아&아트프로젝트보라
찬란하게 슬픈 우리들의 시간 〈울어라 청춘〉
바른웨딩&극단 마중물
푸른 제주를 달리는 문화 트럭,
'두드라 트럭 프로젝트'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 제주메세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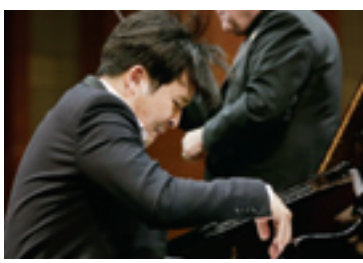
52 MEMBERS NEWS 회원사 소식

54 ARTS & BOOK 〈클래식 음반 세계의 끝〉 노먼 레브레히트 지음

55 CALENDAR 회원사 공연 · 전시 · 공고 일정 소개

56 MEMBERS LIST 회원사 소개

30


42

예술과 경영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닮음과 다름을 파악하는 예민한 눈이 필요하다는 것, 균형과 불균형, 분리와 융합, 확실성과 불확실성, 분산과 집중, 가벼움과 무거움은 모두 예술과 경영을 말할 때 적용되는 개념들이다. 이들 상반된 요소들은 때로는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각각의 공간에 결과물을 만든다. 이처럼 경영과 일체를 이룬 예술을 생각해보고, 서로의 시선으로 예술과 기업의 접점을 찾아본다.

예술이 기업가치를 창출하다

COLUMN 현대 경영의 키워드, ‘예술적 개입을 통한 창조적 충돌’ – 정인호
CONVERSE ‘경영예술’의 시대가 도래하다 – 김효근
기업가치와 예술가치의 접점을 생각하다 – 민정아
PEOPLE 한국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역사를 말하다, 디자이너 김현 – 최나미

현대 경영의 키워드,

01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1955)〉은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동명 작품을 재해석해 그린 15개 연작 중 하나다. ©Christie's

02
들라크루아가 낭만주의 화풍으로 그린 〈알제의 여인들(1834년경)〉.©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03
미술사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아비뇽의 처녀들(1907)〉 ©The Bridgeman Art Library

04
인상주의에 대한 세잔의 관심이 표현된 〈다섯 명의 목욕하는 여인들(1877~1878)〉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01

유럽의 한 제조회사는 예술가를 생산라인에 투입하자 직원들의 생산 효율성이 25%나 향상됐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예술가와 함께 지내면서 단순한 기계나 설비 이면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됐고, 직원들 간 소통도 원활해지면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수년간 지속된 불황과 저성장 속에서 최근 경영계에선 앞서와 같이 비즈니스 현장에 예술적 요소를 도입하는 '예술적 개입(Artistic Intervention)'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기업의 경영에서 예술의 의미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단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연 관람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별 예술가를 후원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현재 비즈니스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술가가 기업의 전략 수립 단계부터 제조, 판매, 마케팅과 같은 전반적인 기업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예술적 개입을 도입 ·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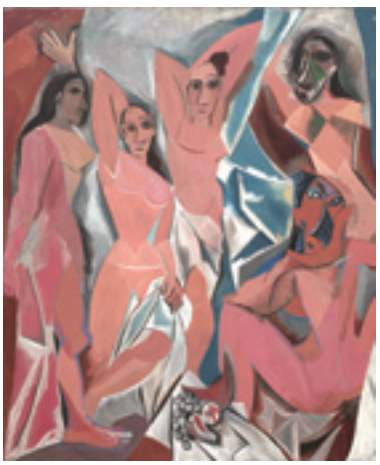
WRITER 정인호(GGL리더십그룹 대표, <화가의 통찰법> 저자)

‘예술적 개입을 통한 창조적 충돌’

피카소의 그림에서 찾은 경영의 바이블

2015년 5월 11일,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유화 〈알제의 여인들〉이 사상 가장 비싼 미술품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서 세계 미술품 경매 역사를 새로 썼다. 이날 〈알제의 여인들〉은 1억7,935만5,000달러(약 1,965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피카소의 기존 최고가 작품인 〈누드, 녹색 잎과 상반신〉이 2010년 낙찰될 당시의 1억640만 달러(약 1,166억 원)를 제친 금액이다. 사실 피카소가 그린 〈알제의 여인들〉은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의 최고 대표자로 손꼽히는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의 동명 작품을 모방한 것이다. 피카소는 92년의 생애 동안 그림, 조각 등 총 5만 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작품을 남겼다. 과연 그의 작품 생산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모방’이다. 오늘날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는 피카소의 대표작인 〈아비뇽의 처녀들〉도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화가 폴 세잔(Paul Cèzanne, 1839~1906)의 〈다섯 명의 목욕하는 여인들〉을 모방한 것이다. 폴 세잔의 이 작품은 20세기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입체주의의 선조 격인 작품이다. 당시 ‘목욕하는 여인들’이라는 주제는 전통적으로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주제였는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판화로 대량 복제되어 출판물을 통해 광범위하게 보급됐다. 세잔의 작품은 그가 따랐던 옛 대가들의 흔적이 남아있으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갖는 누드’라는 전통적 개념과는 달리

02



03

04

어색하고 중성적으로 보인다.

세잔 이후 사물의 형태와 특징을 단순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입체주의는 원근법과 같은 기존의 미술 기법에 구애받지 않고 작가의 생각을 그리는 대상에 투영하기 시작했다. 입체주의 이전에는 보이는 것을 그렸다면 그 이후부터는 작가가 생각하는 것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입체주의의 거장인 피카소가 가만 놔둘 리가 없다.

피카소의 모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피카소는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사조를 대표하는 벨라스케스(Diego Rodríguez de Silva Velázquez, 1599~1660)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모방한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각 인물의 성격과 이미지, 따로 떨어진 공간을 한데 그려놓고도 전혀 분리되지 않은 느낌을 준다. 그림 속의 공간은 창과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해 나누어져 있고 또 얼굴이 크고 비굴해 보이는 난쟁이들, 위엄을 갖추고 있으나 어린 공주, 궁정화가로서 자부심을 보이는 화가 등 각각의 인물 묘사도 사실적이고 뛰어나다.

왕실 가족과 그 측근, 고위 성직자 등 소수의 인물들만이 볼 수 있었던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미술관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시도됐다. 이런 이슈를 몰고 다니는 작품에 대해 피카소도 주목했다. 먼저 그는 벨라스케스를 모방하기 시작한다. 상상력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도전한 것이다.

지금까지 피카소가 모방한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봤는데, 뭔가 이상한 구석을 발견했을지 모르겠다. 피카소가 들라크루아, 폴 세잔, 벨라스케스 등의 작품을 모방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의 작품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피카소는 〈알제의 여인들〉을 그릴 당시 들라크루아의 원작 해석에서 탈피한 패러디를 위해 15번이나 고쳐 그렸다. 특유의 입체파 화법으로 '휘갈긴' 벌거벗은 여인들의 형상이 자유롭고 감각적으로 담아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또한 피카소의 단순 모방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관에 가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모방한 피카소의 그림이 58점이나 전시되어 있다. 모방으로 시작해서 기존 그림을 파괴하고 수정하고 개선해 나간 것이다. 즉, 단순 모방이 아니라 창작이 된 것이다. 피카소의 오랜 친구였던 하이메 사바르테스(Jaume Sabartes, 1876~1942)는 이렇게 덧붙였다. "피카소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에서도 영감을 얻었다. 그러나 누구도 흉내 내지 않았다."

피카소는 다른 작품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물을 모방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그렸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것이다.

애플이 위대한 기업이 된 이유는?

애플(Apple)은 위대한 기업이다. IT생태계의 대변혁을 몰고 왔고, 미적으로 아름답고 탁월한

05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와 면밀한 관찰이 결합된 사실주의의 대표작 〈시녀들(1656년경)〉 ©Museo Nacional del Prado

06
피카소는 40여 점의 모방 작품에 인물들의 얼굴을 다양한 버전으로 그렸다. ©Museu Picasso

07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IT 기기의 총아가 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iWatchHotDeals

08
구글TV 리모컨(좌)과 애플TV 리모컨(우)의 차이. 단 구글TV 리모컨은 여러 제조사에서 만들어 배치와 기능의 차이가 있다. ©Chris Nuttall

05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러한 애플의 혁신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애플이 혁신의 대명사가 된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에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뉴욕타임스는 2014년 8월 익명 보장을 전제로 만난 애플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애플 대학'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소재 애플 연수원의 커리큘럼과 건물 구조, 운영방식 등을 소개했다. 인터뷰에 응한 애플 직원들은 연수원 수업 가운데 핵심과정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Pixa) 출신 랜디 넬슨(Randy Nelson) 교수의 '애플에서의 소통법'을 꼽았다. 다양한 직위의 애플 직원이 동시에 수강하는 이 강좌는 애플에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법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는데, 지난해 수업에서 넬슨 교수가 피카소의 1945년 작품인 〈황소(Bull)〉를 소개하면서 유명해졌다.

당시 넬슨 교수는 피카소의 복잡한 황소 그림을 1개월 동안 꾸준한 관찰과 작업을 통해 10개 남짓의 단순한 선만으로 간략화한 것을 소개하며, 애플 제품의 뛰어난 디자인과 성공도 이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넬슨 교수는 78개의 버튼이 달린 '구글TV' 리모컨과 단 3개의 버튼만 남긴 '애플TV' 리모컨을 비교한 뒤, "구글은 개별 참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모두 넣는 바람에78개가 됐지만, 애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버튼 3개로 충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애플이 피카소의 심플함을 모방한 결과물인 셈이다.

모방을 시작하고 파괴하고 개선하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기업경영에서도 모방을 즐겨야 한다. 그리고 모방을 파괴하고 새로움을 더했을 때 창조가 탄생된다. 이것이 평범한 기업이 비범한 기업으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배우이자 희극인인 폴 호건(Paul Hogan)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이 창조, 창의와 관련 활동들을 머리로만 이해한다. 이는 이성적 사고에만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술적 개입은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접목하는 개념으로 예술과 조직이 전혀 다른 세계를 탐험하는 창조적 충돌(Creative Clash)의 과정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예술이 밥 먹여 주나?"라는 말을 듣곤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제는 예술이 밥 먹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술적 속성인 상상력과 창조를 통한 혁신적인 제품 창출, 그리고 표현의 파괴, 감성적 공감, 인간적 존중 등의 속성을 통해 조직 구성원 간의 협업과 소통을 이끌어 결국 기업 경영에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애플이 피카소를 모방하듯 말이다.

06

07

08

'경영예술'의 ——시대가 ——

경영예술(Business Art)이란 예술 창작 원리를 기업 경영에 접목해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로써 고객의 소비 경험을 예술적 감동 수준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예술가로서 사업하기'이다. 즉, 기업이 예술가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깊은 감지를 통해 미발현 욕구를 통찰한다. 그리고 상상력을 통한 창의적 작품(제품과 서비스)을 창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은 마치 작곡가나 화가, 무용가, 시인 등 예술가들이 세상에 없던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처럼 기존에 없던 신제품, 신서비스, 신제품–서비스–융합 솔루션, 신브랜드라인 등을 만들어낸다. 이는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내어 팬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팬심은 고객으로 하여금 기업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게 만들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알리게 되며, 이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이미 사업을 경영예술로써 실천하고 성장해온 기업들이 적지 않다. 가령 디즈니(Disney)사가 그렇다. 디즈니가 발표하는 거의 모든 장편애니메이션 영화는 '백설공주(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이후 최근 개봉된 '미녀와 야수(세 차례의 리메이크 작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 팬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알리고, 이것이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로 세상에 없던 놀이공원으로 탄생한 '디즈니랜드(Disneyland)' 역시 한 번 방문한 고객을 완전히 감동시키고 주변 지인들까지 오게 만드는 자발적 홍보대사로 만드는 마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우리가 식상할 정도로 들어온 애플(Apple)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성공 스토리 역시 경영예술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다.

지난 30여 년간 예술과 경영이라는 인간 활동의 큰 두 영역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20세기에 발달한

WRITER 김효근(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과학적 경영의 원리와 방법을 예술 분야에 도입하는 시도인데, 흔히 '예술경영' 혹은 'Arts Management'라고 부른다. 둘째는 예술을 기업 활동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다. 좁게는 예술을 기업 공간의 장식으로 활용하거나 직원들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으로 활용하고, 넓게는 리더십 계발이나 인성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기업 비전과 목표 수립 도구로 활용하는 것인데 흔히 예술기반 경영(Arts-based Management)이라고 정의된다.

최근에는 예술과 경영의 접목에 관한 두 가지 시도를 넘어 '예술로서의 경영' 또는 '예술로서의 비즈니스(Business as Art)'를 의미하는 '경영예술'이 주목을 끌고 있다. 경영예술은 한국 기업이 21세기를 맞아 창조적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도래하다

예술은 끊임없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인류를 감동시켜 왔다. 이는 예술혼을 가진 예술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 즉,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인 창조성과 새로운 가치, 고객 공감과 감동, 정체성과 자율성이 21세기 기업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많은 명작 애니메이션과 꿈의 놀이공원을 창조한 디즈니, 세상을 바꾼 신제품들로 가득한 애플, 세계인을 열광시킨 유튜브(Youtube), 구글 어스(Google Earth) 등을 펼치는 구글, 역사상 유례가 없던 만물백화점 아마존(Amazon) 등과 같은 기업들을 보자. 이들은 단순한 제품 혹은 서비스 생산자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예술가로서 사람들에게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해당 고객을 감동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행복하게 일하는 경영예술을 이미 실현해 오고 있다.

21세기는 과학적 경영만으로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이다.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과학적 경영의 대명사였던 노키아(Nokia)는 애플의 예술작품이 세상에 나오자 순식간에 생존 기반을 잃게 됐다. 과학적 경영의 기반 위에 경영예술을 펼쳐야만 하는 '경영예술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을 누가 앞서서 예측하고 실천하는가가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미 경영예술의 시대인 것이다.

기업가치와 예술가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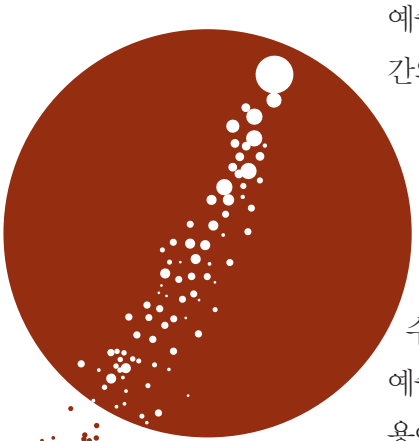
기업과 예술의 적극적 관계 맺음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술을 후원하는 미국인들(Americans for the Arts)'의 경우 'the pARTnersihp Movement[1]'를 통해 기업이 예술과 파트너를 맺어야 하는 여덟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력의 확대, 기업의 전략 강화와 같은 고전적 기업경영의 가치에서부터 지역의 예술기관 · 단체 지원으로 역량 있는 내부 구성원 확보가 가능한 점, 해당 구성원들의 창의적 사고 진작과 능력 향상, 충성도 향상과 같은 기업 역량 강화 부분, 사회적 다양성 포용과 이해 확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일본기업메세나협회의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201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GBFund(ジービーファンド、G : 芸術,B : 文化、F復興/ファンド, 예술문화부흥펀드)[2]'를 지속함으로써 재해 후 지역민들의 재건을 돕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현재 일본 내 모든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오늘이 내일의 형태를 만들어간다는 신념 아래 '2021 예술문화에 의한 사회창조펀드(芸術・文化による社会創造ファンド:2021 Arts Fund)[3]' 지역문화 진흥 · 창조, 국제교류 활성화, 인재 육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예와 비슷하게 우리의 경우도 예술과 기업이 결연, 지원, 협업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기업가치의 확대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예술지원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한국메세나협회 '2016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는 예술과 기업이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현장뿐 아니라 학계의 관심 또한 꾸준한 편인데, 매년 기업메세나 활동과 관련한 논문 역시 여러 편이 출판되고 있다. 주제도 아트 마케팅, 콜라보레이션,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형성 등의 전략적 접근에서부터 예술교육, 지역문화 진흥, 예술 지원에 대한 조세정책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과 예술이 함께 함으로써 빚어내는 가치와 의미,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예술인들이나 소위 공연과 전시회를 즐겨 다닌다는 일반 관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예술과 기업의 적극적 교류를 얼마나 체감하는 바를 물어보면 그 정도는 크지 않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크지 않다기보다 매년 발표를 통해 접하는 기업들의 예술지원활동의 결과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인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술지원의 지속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있겠으나, 우리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 영역이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예술인과 관

WRITER 민정아(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접점을 생각하다

객들은 ○○홀, ○○갤러리 등을 접할 때 이들 공간을 예술지원의 성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업의 이름을 딴 투자 대상, 또는 기업자산의 일부로만 인식함으로써 기업과 예술의 상생 개념을 공유하는 것에 있어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예술지원, 예술과 기업의 협업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가치를 나누고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와 예술의 가치는 어떤 지점에서 만날 수 있으며, 어떠한 것을 계기로 확장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구하는 과정이 곧 기업과 예술의 가치를 가늠하는 일일 것이다. 우선 기업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현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그동안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다수의 지원이 장르 집중과 수월성에 기반을 둔 직접지원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가치인식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런 내용이 전체 기업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것도 분명한 문화예술 가치의 창출이지만, 그러한 접근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 확대에는 지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에 의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년 기업의 예술지원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이 자기 복제의 연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는 점에서 기업과 예술의 결합형식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미 예술의 심미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이 사회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류가 해결해 나가야 할 범세계적 문제부터 작은 마을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곳곳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작지만 세세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엘리트주의 시각 외에 시민의 생활에 가까이 있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발견, 다양한 장르에 대한 폭넓은 접근 등은 기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적합한 형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예술인들뿐 아니라 매개 인력 지원과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http://www.partnershipmovement.org/the-movement
2) http://culfun.mecenat.or.jp/grant/gbfund
3) http://culfun.mecenat.or.jp/collect/2021artsfund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1993년 대전 세계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캐릭터를 탄생시킨 사람이자, 1970년대부터 수많은 유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업 ·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든 사람이 김현 대표다. 기업 ·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는 것의 개념을 바로 세우는 데 걸린 50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역사를 말하다

디자이너 김현

WRITER 최나미 PHOTOGRAPHER 장승호

기업 아이덴티티는 자신의 진정성을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약 50년 전, 우리나라 브랜드 디자인은 초창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기업 관련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은 디자이너는 김현 · 한도룡 · 민철홍 · 양승춘 · 박용귀 · 조영제 등 열 손가락을 채우지 못했다. 오늘날 이들은 한국 디자인의 1세대 디자이너로 불리는데, 기업 브랜드와 홍보, 산업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며 우리 디자인의 토양을 일궈낸 선구자들이다. 디자이너 김현은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대회의 마스코트였던 호돌이 캐릭터를 디자인한 인물로, 기업 · 브랜드 디자인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대기업의 디자인실을 떠나 자신의 디자인 회사(디자인파크)를 만들었다. 그는 이 회사를 통해 기업 · 브랜드 아이덴티티(CI·BI), 네이밍 등 브랜딩 전문 에이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람 좋은 얼굴로 "올해는 회사를 만든 지 33년, 디자인을 시작한 건 48년이 됐다"고 말하는 디자이너 김현. 우리나라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자리 잡는 데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을까.

"CI와 BI가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처음에 소비자들은 시장에 나온 상품들을 비교해 가장 잘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제품이 질이 가장 중요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의 질이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노력으로 제품력이 높아졌고 차츰 제품 수준이 엇비슷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제품을 비교하고 구입할까요? 기업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해답은 바로 '기업 이미지'였습니다. 제품의 질이 비슷하다면 소비자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때부터 기업들은 기업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면에서 기업 이미지를 좋게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줄곧 그런 측면에서 기업 이미지를 디자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일을 해왔고요."

01 02

01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공식 마스코트 호돌이
ⓒ국립현대미술관

02
우주 아기요정의 모습을 그린 대전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꿈돌이
ⓒ대전엑스포'93 기념화사업

기업뿐만이 아니라 금융권, 공공기관 등의 브랜드 작업에서 그는 수많은 디자인을 해왔고, 그가 탄생시킨 디자인은 일일이 세기가 힘들 정도다. 많은 작업을 통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

"디자이너 후배에게도, 제게 디자인을 맡기는 기업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기업이 왜 CI·BI를 만들까요? 소비자에게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확인시키고, 우리가 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고요."

디자이너 김현은 여기에서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힌다.

"실제 기업의 내용은 좋지 않으면서, 좋게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과장하고 치장해서는 안 됩니다. 시쳇말로 그건 제 무덤 파는 거예요. CI·BI는 정

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해 나갈지를 보여줘야 해요. '우리 기업은, 그리고 우리 브랜드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할 겁니다. 믿어주세요'를 부르짖는 것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이거든요. 이건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여타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브랜드, 국가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이 뭘 잘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으로 목표를 잡고 뛰어야죠. 인생을 살면서도, 디자인할 때도, 기업의 목표를 잡을 때도 그 기본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한 길을 걸었던 천생 디자이너

디자이너로서 김현의 인생은 크게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디자이너의 직함으로 디자인 현장을 떠나지 않은 그이기도 하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 5년 교육과정(고등학교 3년, 대학 2년)의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에 입학했는데, 당시 신문에 포스터나 광고물 현상 공모가 많이 나왔어요. 공부할 겸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수없이 도전했는데 비참할 정도로 죄다 떨어졌죠. 서른다섯 번을 연속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초보 아마추어니까 스스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도전한 거죠. 그러다가 '실제 당선된 작품과 내 작품을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낙방을 겪다가, 1969년 제일은행 창립 40주년 기념 전국저축포스터공모전에서 처음으로 1등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학생부 부문으로 작품을 제출했는데, 일반인 포함 전체 최고상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 포장지 공모전에서도 또 1등을 했죠. 그때부터 소위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인데, '대중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웃음) 이후 호돌이까지 80회 정도 공모전에 나가 1등을 했어요."

그렇게 디자인업계로 입성한 김현은 50년 가까이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기업과 함께했으며, 다양한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이제까지 했던 디자인 중에 뭐가 가장 애착이 가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역시 호돌이가 제일 기억에 남지 않느냐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이제까지 작업한 디자인 모두 애착이 갑니다. 크든 작든, 많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작업해 탄생한 디자인이니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조금 더 정이 가긴 해요. 호돌이는 물론 대전 엑스포 꿈돌이(1993년)도 유명한

캐릭터죠.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이런 캐릭터는 행사를 위한 캐릭터다 보니까, 행사의 끝과 함께 그 생명이 끝이 나거든요.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니까 좀 안타까워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디자인을 통해 쉽게 기업 아이덴티티를 이미지화해 인식하고 그만큼 빨리 소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 대표는 CI·BI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원래 CI·BI는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디자인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CI를 만들어 실제 적용하다 보면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기업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거나 변경되면서 CI의 이미지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주는 후속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업 · 기관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 개선되어야 할 거예요."

평생을 디자인 작업에 시간을 보냈으니 가끔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둘만도 하련만, 그의 버킷 리스트에는 하고 싶었던,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디자인 아이디어들이 가득 들어 있다.

"제 개인 작품 중에는 한국의 관광 포스터가 많아요. 전시할 때마다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그렇게 작업했던 것들이죠. 조만간 한국의 아름다움을 디자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집중 작업해 보고 싶어요."

영원의 힘을 가진 문화예술

디자이너 김현은 무수한 기업들과 작업하면서, 어느 기업이 어떤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했었는지 기억할 정도로 메세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메세나 활동의 의미,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디자인도 문화예술의 한 장르죠. 그래서 저는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고민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이해해요. 기업 활동이 원활히 잘 돌아가서 안정되어야 우리 문화예술에 기여하는 활동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래 우리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살아있을 때 좋은 일 했던 것만 기록에 남는다고요. 역사책에는 어떤 사람이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는 별반 기록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는지, 후대에 어떤 정신을 남겼는지는 반드시 남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 후원은 영원한 기록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죠. 재력의 일부를 문화예술에 투자함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영원히 살아남아 칭송되는 메디치라는 이름을 남겼으니까요. 오늘날 기업들이 메세나 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어요."

표지로 보는 계간 <MECENAT> 이야기

mécénat가 100호를 맞이했습니다!

격월간으로 바뀐 1995년 1·2월호(통권 제6호)

계간 형태로 변경된 1998년 봄호(통권 제24호)

월간 <메세나> 창간호

1994년 8월 창간된 <메세나>는 1994년 12월호까지 월간 주기로 발행됐다. 1995년부터 격월간으로 바뀌어 1997년까지 제작됐고, 1998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계간 주기로 변경되어 이어오게 됐다.

한국메세나협회의 <MECENAT>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스물네 번의 사계절을 지나 이번 호에 이르러 100호를 맞이하게 됐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꾀하여 우리 문화의 경쟁력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의 가치를 일깨워온 <MECENAT>. 앞으로도 기업과 문화예술 간 소통의 장으로써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할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편집·디자인·인쇄 환경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2003년 봄호부터는 판형 확대·페이지 증면과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제호도 지금의 <MECENAT>로 바뀌어 더욱 세련된 매거진 형태로 변모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표지는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인물이 등장해 분위기를 새롭게 했다.

판형과 디자인이 개선되고 제호가 <MECENAT>로 변경된 2003년 봄호

기업인, 문화예술인이 표지에 등장한 2004~2008년

예술 창조의 순간을 표지화한 2009~2011년

2010년을 전후해 디자인은 더욱 세련되어졌다. 문화예술이 탄생하는 순간을 표지 이미지로 활용하기도 하고, 제호의 위치나 편집 디자인의 구성에서 변화를 찾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회원사의 기업 아이덴티티(CI)를 문화예술과 적절하게 조화시킨 표지가 이채로웠고,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은 2014년은 심플하고 여백의 여유를 살린 디자인으로 주목을 끌었다.

제호와 디자인 구성의 변화를 모색한 2012년

회원사 CI를 적극 활용한 2013년

문화예술의 향유를 이미지로
표현한 2014년

제호에 변화를 꾀하고
액자 형태로 안정감을 준 2016년

변화무쌍한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

여 현대적이면서도 심미(審美)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안정적인 액자 프레임의 단정한 느낌에서, 최근에는 콜라주 일러스트 기법을 통해 텍스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일신했다. 메세나의 의미와 역할, 영향에 대해 표현하는 주제는 동일하다.

모던한 일러스트로 분위기 변화를 꾀한 2017년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한 지난 시간, 100호의 이야기들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 <MECENAT>가 걸어온 길

기업과 문화예술의 협력 시대를 약속하다

1994년 4월 한국메세나협회(당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창립하고, 8월 1일 <메세나>가 창간되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새로운 만남'을 콘셉트로 한 <메세나>는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 여러 기관과 예술단체에 배포되어 아름답고 건강한 기업-문화예술 간 교류를 이끌어가는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최원석 초대 회장은 창간사에서 "기업인과 예술인 모두가 즐겨 이용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기업과 문화예술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충실한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문화예술 지원의 모범 기업 소개

1999년 '문화예술지원 기업대상(현재 메세나대상)'이 제정됐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성원을 일깨우고, 동시에 기업과 문화예술계 간 연대를 두텁게 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예술지원 기업대상'의 의미와 목적, 시행 방안 등을 특집 기사로 소개했다(1999년 가을호). 한편, 2000년 봄호에는 메세나 기업인과 문화예술인이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돼 오찬간담회를 진행한 소식이 실렸다. 회원사들의 청와대 초청 행사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주로 오찬과 대화, 건의사항 전달과 대통령의 격려 등으로 진행됐다.

- **1994. 4** 월간 주기로 <메세나> 창간호 발행
- **1995. 1** 격월간으로 발행 주기 변경(통권 제10호)
- **1998. 3** 계간으로 발행 주기 변경(통권 제24호)
- **2003. 3** <MECENAT>로 제호 변경, 판형 확대(통권 제44호)
- **2004. 3** 창립 10주년 기념 특집호 발행(통권 제47호)
- **2005. 3** 통권 제50호 발행
- **2013. 6** 제호 디자인 변경(통권 제83호)
- **2014. 3** 창립 20주년 기념 연중기획 구성 (통권 제86~89호)
- **2017. 9** 통권 제100호 발행

창간호의 창간사, 창간축사

회원사 대표 청와대 초청 오찬 행사

한국메세나협회 10년, 새로운 출발

2004년 한국메세나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2004년 봄호는 10주년 기념과 관련된 특집을 대대적으로 싣고, 협회명 변경(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한국메세나협의회)과 함께 제호 디자인, 편집 디자인 체계를 탈바꿈했다. 한편, 2005년 봄호에 이르러 통권 50권을 발행했다.

기업과 예술의 유쾌한 상생을 도모하다

2005년 12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이 출범하고, 2007년 3월에는 '중소기업 예술 지원 매칭펀드 사업'이 시작됐다. <MECENAT>는 2007년 봄호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크게 게재하면서, 기업은 예술을 돕고 예술은 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2012년에는 회원사 초청 음악회(현재 회원 음악회)와 메세나 CEO 문화포럼이 처음 개최됐다. 문화예술 감상뿐 아니라 회원사 대상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진행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2013년에는 협회명이 변경(한국메세나협의회 ▶ 한국메세나협회)되어 여름호부터 새로운 제호 디자인과 함께 발행됐다.

회원 음악회, 메세나 CEO 문화포럼 개최

중소기업 예술 지원 매칭펀드 사업 출범

메세나법 제정과 함께, 한국메세나협회 20주년 맞아

2014년은 한국메세나협회의 큰 변화와 도약이 있던 해였다. <MECENAT>은 기획 코너를 마련해 메세나법의 제정과 시행을 조명했고, '문화융성의 조건'을 주제로 한 20주년 기념 특집을 연중 게재했다. 페이지수도 확대하여(2013년 대비 16~18페이지 증면) 주요 이슈와 정보를 실었다.

메세나법 제정과 시행을 알린 기획 칼럼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 '문화융성의 조건'

2016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2,025억 원, (2015년 대비 ▲12.2%)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발표

한국메세나협회가 조사한 '2016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결과 2016년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2,025억 8천1백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공연장 등 문화예술 인프라 운영 실적 증가분을 감안하면, 기업의 지원 규모는 사실상 소폭 감소한 결과이다. 이는 총 497개 기업이 1,463건의 사업에 지원한 금액이다.

지원 금액 증가했지만, 지원기업 수 및 지원 건수 감소
지난해 정치적 악재 및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해석돼

지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원 총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문화재단을 통한 지원 금액의 증가이다. 기업의 예술지원 창구인 재단을 통한 지원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30억 원가량이 증가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지원 금액이 총 지원 규모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3.6%가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예술지원이 하드웨어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16년도 하반기의 롯데콘서트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발생이 인프라 부분 지원 규모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

다만, 지원기업 수(▼18.4%)와 지원 건수(▼5.3%)는 상당히 감소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정치적 악재들로 인해 소액기부를 하던 기업들이 기부를 철회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문화소비 심리 위축 등이 실질적인 감소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지원기업 수	653	559	609	497	▼18.4
지원 금액 (단위: 백만 원)	175,323	177,185	180,523	202,581	▼12.2
지원 건수	1,832	1,659	1,545	1,46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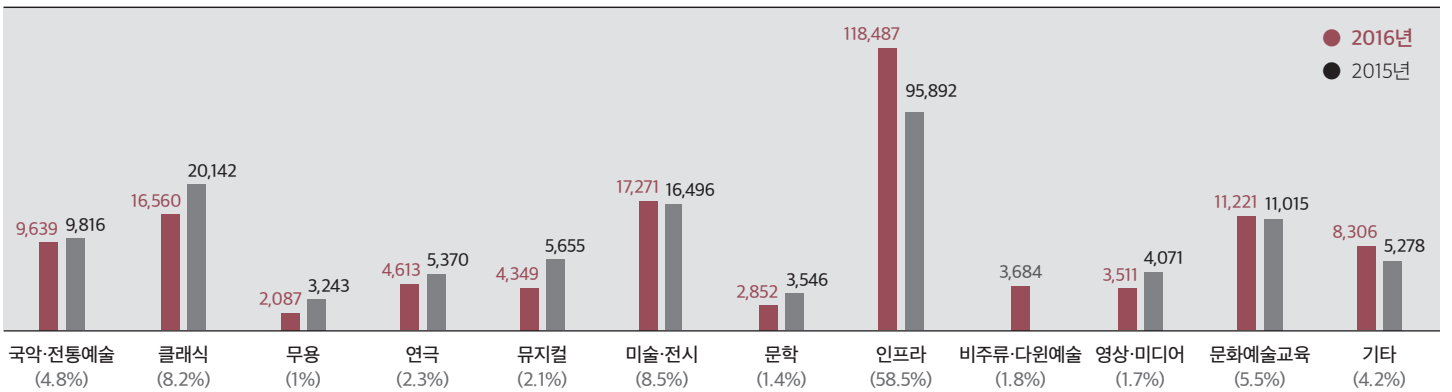
[표1] 2013~2016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인프라 운영 제외한 나머지 영역 사실상 감소세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45.4%가 기업 출연 재단을 통해 이루어져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인프라 지원액이 1,184억 8천만 원(전년 대비 ▲23.6%)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그다음으로 미술·전시(172억 7천만 원), 클래식(165억 6천만 원), 문화예술교육(112억 2천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증가해 총 지원 금액의 58.5%를 차지한다. 기업의 지원이 가장 집중되는 분야이다. 이는 기업이 세운 공연장, 미술관 운영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015년, 2016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

[그림1] 2015년, 2016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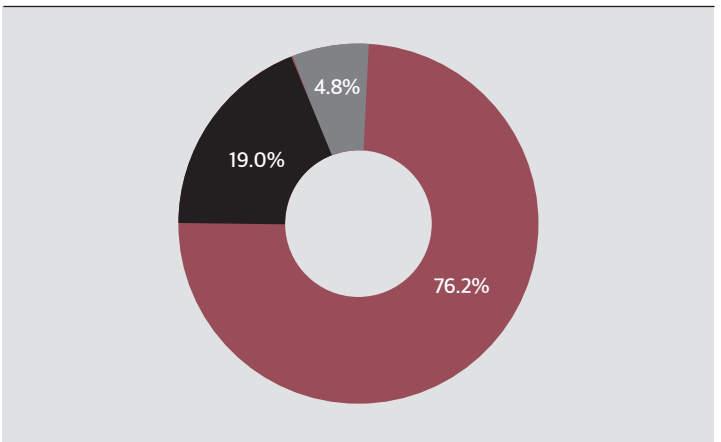
WRITER 김옥진(경영기획팀 대리)

미술·전시(▲4.7%), 문화예술교육(▲1.9%)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의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오케스트라, 오페라, 합창, 음악축제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클래식 분야는 35억 원(▼17.8%)가량 감소했으며, 국악·전통예술(▼1.8%), 영상·미디어(▼13.8%), 연극(▼14.1%), 문학(▼19.6%), 뮤지컬(▼23.1%), 무용(▼35.6%)에 대한 지원 역시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지원 주체별로 보면, 기업 출연 재단의 2016년도 지원 총액이 919억 4천8백만 원으로 전체 문화예술 지원 금액의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문화예술 지원에서 기업 출연 재단을 통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각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에 따라 문화예술분야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적사업을 전개해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단 지원 금액의 75%(약 690억 원)가 인프라 운영에 치우쳐 있어, 기업 출연 문화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 내용적으로는 하드웨어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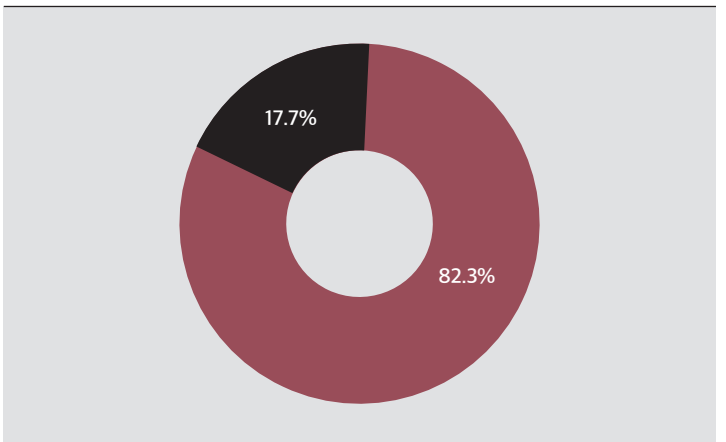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기업 메세나 활동 위축에 일부 영향 미쳐
설문 응답 기업 중 23.8%,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축소 및 중단

2016년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의 위축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도 하반기 메세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항에 응답 기업의 23.8%가 문화예술 지원 관련 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고 답했으며, 2017년의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답변이 17.7%를 차지했다.



● 76.2%	영향을 받지 않았음
● 19.0%	지출 금액을 축소하여 진행함
● 4.8%	예정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중단)

[그림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 하반기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에 미친 영향



● 82.3%	영향을 받지 않음
● 17.7%	지출금액 감소에 영향을 미침

[그림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7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 계획에 미치는 영향

순위	기업	기업 출연 재단
1	KT&G	삼성문화재단
2	현대중공업	롯데문화재단
3	롯데백화점	LG연암문화재단
4	신세계백화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5	현대백화점	GS칼텍스재단
6	현대자동차	CJ문화재단
7	크라운해태	두산연강재단
8	삼성화재	현대차 정몽구 재단
9	신한은행	대산문화재단
10	한화생명	파라다이스문화재단

[표2] 2016년도 문화예술 지원 상위 10개 기업 및 재단
(※지원 금액은 응답기업/재단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큰 우려 중 하나는 법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예술에 대한 지원을 심리적으로 꺼리게 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기업의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과 예술계는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는 살려나가면서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술계는 직접적인 후원 유치 외에도 우수한 콘텐츠 개발과 판매를 모색하는 등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별기업 부문 1위는 KT&G,
기업 출연 재단 부문 삼성문화재단 1위 유지

지원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부문에서는 홍대, 춘천, 논산 등에서 상상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KT&G가 1위를 차지했고, 기업 출연 재단 부문은 삼성문화재단이 1위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출연한 재단의 2016년도 지원 총액은 919억 4천8백만 원으로 전체 문화예술 지원 금액의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개별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총액은 1,106억 3천3백만 원(54.6%)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술

평범한 시민들이 이루어낸 근대적 예술 후원

서구문화사에서 '르네상스'라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탄생시켰던 이탈리아였지만, 16세기 이후 프랑스·스페인 등 강대국의 틈에서 점차 그 왕성한 생명력의 빛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기 스페인으로부터 과중한 세금과 무자비한 종교적 탄압으로 고통받았던 네덜란드는 1579년 스스로 공화국임을 선포하며 분연히 일어선다. 그리고 1609년 자치권 일부를 인정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마침내 1648년 저지국(Low County)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식적인 독립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훗날 '네덜란드 황금시대(The Dutch Golden Age)'라 일컬어지는 전성기를 맞이하며 '근대'로 나아간다.

WRITER 박파랑(문화예술전문 렉처 브랜드 Art Afternoons 운영자)

세상의 중심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도래

17세기 당시 드물게 절대 왕권이 아닌 공화국 체제였던 네덜란드에는 사상적 자유와 종교적 관용 정책으로 인해 유럽의 우수한 인력이 대거 유입됐고, 이에 따라 앞으로 도달하게 될 눈부신 발전을 위한 기반이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구축되기 시작했다. 물론 시대도 좋았다. 1602년에는 동인도 회사가, 1621년에는 서인도 회사가 설립되어 포르투갈이 독점하고 있던 동방무역에 뛰어들었고, 향료무역이나 노예무역과 같은 대륙 간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금융업, 상공업, 화물운송 등도 함께 발전했는데, 그 결과 인구 2백만 명에 불과한 조그마한 해안 국가 네덜란드는 독립한 지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됐다. 네덜란드의 부는 암스테르담과 같은 도시뿐 아니라 인근 저지국의 안트베르펜, 브뤼셀, 겐트 같은 곳으로까지 공유되었고, 도시들을 중심으로 근대적 시장 경제로 이행됐다. 그리고 이 도시를 채운 것은 상인, 무역업자, 선박 소유자, 전문직 종사자와 같은 신흥 부유층은 물론 소상인, 수공업자, 하급관리와 같은 중산층 일반의 시민들이었다.

돈이 넘쳐나는 곳에는 의례 문화예술의 발전이라는 형태의 꽃이 피기 마련 아니겠는가? 네덜란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주역이 이전 시대 전통적인 예술 후원자였던 귀족이나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귀족들에게는 귀족들의 문화가,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시민들의 문화가 정착했고, 1628년 빌렘 판 헤흐트(Willem van Haecht)가 제작한 이 한 장의 그림[01]은 이 시기 네덜란드의 변화된 경제적, 문화적 양상을 잘 드러낸다.

돈 많은 향신료 상인, 미술에 빠지다

만일 당신이 종교적, 사상적, 경제적 그리고 신분의 자유로움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인 상인이라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향신료로 큰 돈을 벌었던 코넬리스 판 데르 기스트(Cornelis van der Geest, 1577~1638)는 미술품에 빠졌다.

01
빌렘 반 헤흐트 〈코넬리스 판 데르 기스트의 갤러리(1628)〉 ©Rubenshuis

02
대공 부처에게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판 데르 기스트. 그가 설명하고 있는 그림은 플랑드르의 거장 퀜틴 마시스(Quentin Matsys)의 〈성모와 아기예수〉(1525~1530)다.

03
피테르 데 호흐 (Pieter de Hooch)의 〈침실(The Bedroom, 1659)〉 ©christies

안트베르펜 출신의 이 남자는 향신료를 팔아 재화를 축적해 '잡화 및 장신구 상인 길드'의 장(長)으로 활동했던, 나름 그 도시에서 행세깨나 하는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잡화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향신료야말로 인도양과 남중국해의 무역항에서 싸게 구입해 유럽 시장에서 10배나 비싸게 팔아치울 수 있는 당대 최고의 고수익 무역업 아이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주체 못할 만큼 돈을 번 그는 우선 안트베르펜 근교에 멋진 타운하우스를 짓고 저택의 방 하나를 미술품들로 채워 넣었다. 그 미술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이 지역(스페인령 저지대 국가)을 다스리고 있던 알베르트 대공과 이사벨라 대공 부인이 친히 일개 상인의 집을 방문하여 구경할 정도였다.[02] 벽면을 빼곡히 채운 작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어지간한 귀족 못지않은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는 이후 예술을 통해 대공 부처와 지속적인 연결의 고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 양자의 공통 관심사는 바로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라는 작가의 존재였다. 그는 안트베르펜에서 활동하고 있던 루벤스를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사회에 몇몇 미술품 주문을 조성했는데, 그 유명한 제단화 <십자가에 올리다>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다. 그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미술품 컬렉션을 뽐내는 이러한 '갤러리 회화'를 여러 점 주문했는데, 자신의 갤러리를 방문한 유명 인사들을 함께 그려내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그에게 미술가 후원과 미술품 애호는 자신의 경제적 성공은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도 함께 드러내주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네덜란드의 평범한 시민들이 사는 법 - 우리 집에 걸린 그림 한 점!

이러한 미술품 애호는 판 데르 기스트와 같은 부르주아뿐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 시민들에게까지 향유됐다. 암스테르담과 델프트에서 활동했던 피테르 데 호흐 (Pieter de Hooch, 1629~1684)는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주로 화폭에 담았는데, 1659년에 제작된 <침실>[03]이라는 작품에서 우리는 여염집 침실 문 위에 걸린 풍경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 네덜란드의 많은 작가들에 의해 그려진 이러한 실

내 풍경화 속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생활공간 안에 걸려 있는 한두 점의 미술품과 쉽게 마주친다. 이들은 루벤스나 반 다이크와 같은 유명 작가들이 그린, 신화나 성서를 다룬 웅장하고 교훈적인 작품 대신 내 집 거실에 걸어둘 소박한 정물화나 풍경화를 더 선호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문화가 하층민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현실감 물씬 나는 양복쟁이의 작업장 한쪽 귀퉁이에 조차도 풍경화나 정물화 한두 점 정도는 걸려있는 삶[04], 그것이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화가들은 귀족들이 선호했던 신화나 성서 같은 그림들 대신 시민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그림들을 즐겨 그렸고, 이는 '장르화(당대 네덜란드인들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풍속화, 풍경화, 정물화 등)'라는 새로운 조형 양식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시민 수요층의 확대는 '선주문 후제작'이라는 전통적인 귀족들의 예술품 구매 방식이자 화가들의 제작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들은 골동품점이나 서점 등에서 쉽사리 자신의 집 거실에 걸 작품을 구매하기에 이르렀으니, 그야말로 근대적인 미술품 유통방식의 탄생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양상은 19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졌다.

빅토르 쇼케, 어느 세무 공무원의 미술 사랑

태양왕 루이 14세 이래 강력한 절대 왕정을 구축했던 프랑스에서 근대, 적어도 예술의 영역에서 근대적 양상은 19세기에 출현했다. 이전 세기에서는 식민지 확대와 이에 따른 중개무역의 성황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됐다. 동시에 자본주의에 기반한 산업화 또한 가속화됐으니, 이는 곧 새로운 신흥 부유층들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파리지앵들은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시민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부자가 되면 귀족의 흉내를 내고 싶어 한다는 세간의 말대로, 이들 부르주아들은 귀족들의 전통적인 취향에 한층 부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로코코'라고 알려진 귀족적 취향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프랑스인의 특성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미술계는 19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그림들, 가령 근대 도시 파리의 풍속화나 풍경화들을 출현시켰는데(오늘날 우리는 이를 '인상주의'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그림들에 기꺼이 지갑을 열어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빅토르 쇼케(Victor Chocquet, 1821~1891)라는 인물은 확실히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일하는 검소한 공무원이었던 그는 오늘날 초기 인상주의 그림을 구매했던 대표적 컬렉터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로써는 그야말로 괴상한 취향을 가진 자로 취급당했다. 그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수년간 모아 외젠 들라크루아(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이 작가조차도 당시에는 주류미술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의 작품을 하나씩 수집한 인물이었는데, 평론가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즐겼다. 그는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취향에 따라 작품을 선택했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1874년 나다르라는 사진가의 작업실에서 역사적인 인상주의자들의 첫 번째 전시가 열렸을 때,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방문하려 했지만 친구들이 뜯어말리는 바람에 가지 못했던 일을 늘 찝찝하게 생각했다. 그가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을 본 것은 그로부터 1년 후, 1회 전시의 상업적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인상주의자들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 개최한 경매장에서였다. 야유

04
Quirijn van Brekelenkam, 〈The Tailor's Workshop1661)〉 ©Art Renewal Centre

05
르누아르 〈쇼케 부인의 초상화(1875)〉 ©Staatsgalerie Stuttgart

06
세잔 〈빅토르 쇼케의 초상화(1875)〉 ©The Yorck Project

07
자신의 갤러리에서 폴 뒤랑 뤼엘(1910년경). 뒤랑뤼엘은 '인상주의'가 공식적으로 출현하기 전부터 모네와 피사로의 작품을 구입하기 시작해 나중에는 5천 점이 넘는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DornacDurand-Ruel & Cie, Courtesy of Philadelphia Museum of Art

08
르누아르 〈폴 뒤랑뤼엘 초상(1910)〉 ©Bernard Benoliel et Matthieu Orléan

가 난무하는 난장판의 경매장 한편에서 그는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 또한 세잔의 작품에 매료됐다.

쇼케의 컬렉션을 살펴보면 그의 취향뿐 아니라 그가 프랑스 인상주의자들의 개별적 특색을 명민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매장에서 돌아온 직후 그는 르누아르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부탁했다. 섬세한 필치와 사랑스러운 색조의 르누아르 초상화를 맘에 들어하지 않을 여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다.[05] 대신 그 자신은 세잔에게 초상화를 부탁했고, 섬세하기보다는 선이 굵고 다소 단단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전한다.[06] 비록 1874년의 1회 인상주의 전시는 방문하지 못했지만 대신 1876년에 열렸던 2회 전시에는 그새 사들인 피사로의 작품 1점과 르누아르의 작품 6점을 대여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시장의 방문객을 붙잡고 주류 미술계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들 신진작가들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전파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나누고자 했다. 이 전시에 쏟아진 엄청난 비난, 심지어 전시장을 방문했던 평론가 중 한 사람은 입장료 50상팀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일화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그 뚝심과 순수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 싶을 지경이다.

폴 뒤랑뤼엘, 미술품 판매상 혹은 또 다른 의미의 예술 후원자

한편 쇼케에 못지않게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화상도 존재했으니 폴 뒤랑 뤼엘(Paul Durand Ruel, 1831~1922)이라는 인물이다.[07)08)] 두 번째로 열린 인상주의 전시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갤러리를 제공했던 그가 19세기 파리미술계에 대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파리에서 '살롱'展과 관계없이 화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미술 애호가는 단 15명이 있다."

그의 증언은 살롱 전시로 상징되는 주류 미술계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림 판매'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바로 그 '15명'을 대상으로 인상주의자들을 소개한 것이 뒤랑 뤼엘 본인이었다. 덕분에 3번의 파산을 맞아야 했던 그를 가리켜 '인상주의의 창안자(Inventor of Impressionism)'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적어도 인상주의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그는 화상 이상의 역할을 했다. 동시대 화상으로서 역시 모던아트를 다루었던 앙브루아즈 볼라르(Ambroise Vollard, 1867~1939)가 철저히 상업적인 이익에 비춰 작가를 선택하고 영리하게 움직인 덕분에 돈을 벌 수 있었다면, 뒤랑 뤼엘은 착잡한 마음으로 런던과 뉴욕의 새로운 고객을 찾아 길을 떠나야 했다. 누군가 컬렉터 그리고 후원자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관계없이 '자신만의 취향을 가진 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폴 뒤랑 뤼엘은 화상인 동시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예술 후원자라 부를 수 있다. 19세기 모던아트가 생존하고 또 미술계와 컬렉터들의 잔혹한 외면의 와중에도 살아남아 오늘날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데에는, 개별 작가들의 노력과 재능 외에도 이들 후원자들의 역할이 분명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메세나의 참된 의미를 살려볼 수 있을 것이다.

01

01, 02
삼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음악극 <효녀 심청>의 한 장면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국악 즐기기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달콤한 국악

"심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디! 얼쑤!"
객석에서는 추임새가 절로 나오고 무대 위 소리꾼은 흥이나 노래를 이어간다. 200여 명에 달하는 관객들이 무대를 향해 집중하고 있는 사이 10여 명의 악사들이 악기를 들쳐 메고 한바탕 신명 나는 놀이판을 준비하는 이곳은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달콤한 국악(이하 달콤한 국악)'의 공연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강화 삼산초등학교다.

달콤한 국악은 지난해 크라운해태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진행하기 시작한 문화소외지역 방문공연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낯선 음악인 국악 공연을 익숙한 공간에서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악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는 크라운해태가 주최하는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모여라! 국악영재들'의 수상자들이 또래 친구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락음국악단과 동락연희단이 악기 설명과 곡 해설을 함께해 국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공연단체 모두 크라운해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단체인 만큼, 기업의 지원을 받은 예술단체/예술인이 공연을 통해 기업의 CSR활동에 함께해 사회공헌의 선순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7월 6일 강화군 석모도에 위치한 삼산초등학교에서의 공연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석모도는 배를 타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었지만, 지난 6월 28일 석모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어린이 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극 <효녀 심청>을 마련했다.

액운을 물리치고, 순조로운 앞날을 기원하는 '비나리'로 화려하게 시작한 음악극 <효녀 심청>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심청가'와 '심청가'에서 파생된 다양한 민요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친숙한 스토리에 소리꾼들의 뛰어난 노래와 연기가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공연이 1시간가량 이어졌다. 관객들은 출연진들의 연기에 추임새를 넣으며 무대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고, 특히 '어린 청이'역을 맡은 황시원 양이 아버지를 위해 밥을 빌러 가며 부르는 노래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무대를 통해 지역이 하나 되고 흥이 넘치는 밤이 아닐 수 없었다. 달콤한 국악은 강화군 삼산초등학교 외에도 서산 운신초등학교 등 전국 4개 지역 초등학교에 방문해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02

WRITER 김옥진(경영기획팀 대리)

1

크라운해태, 찾아가는 국악영재

when
2017년 7월 6일

who
강화 삼산초 학생, '모여라! 국악영재들' 수상자들과 락음국악단, 동락연희단 등

what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예술단체와 예술인이 공연으로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01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 FGI

when
2017년 8월 18일

who
한화손해보험 임직원 봉사자

what
안전교육에 봉사자로 참여한 한화손해보험 임직원들 심층 인터뷰

2

봉사를 통해 얻어가는 것이 더 많아요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 FGI

02

03

01~03
한화손해보험 임직원 봉사자들이 함께한 안전교육 진행 모습

전국 각지에서 무용을 활용한 안전교육인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을 진행한 지 3년째. 봉사자이자 보조교사로 매 수업마다 성실히 임하고 있는 한화손해보험 임직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수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수업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이 수업을 통해 느끼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봉사활동과는 현격하게 차별화되는 콘텐츠라는 점이다. 연탄배달이나 도시락 배달과 같은 노력형 봉사와 비교해 완전히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문화예술 분야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점을 최고의 메리트로 꼽았다. 음식이나 연탄을 배달하는 경우 봉사자의 역할이 크지 않은데 이곳에서 수업을 함께 진행하니 역할도 분명하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봉사자 스스로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봉사자들의 경우 말로 하는 훈육이 아닌, 몸으로 익혀 직접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영상이나 책을 통한 교육의 한계는 명확하다. 어린이들의 수업과정을 함께하면서 직접 몸으로 익힌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기혼자 봉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한화손해보험 내부에서 다른 자원봉사보다 위기탈출 안전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도 이런 부가적인 혜택들의 역할이 크다고 한다. 대체로 봉사활동을 가면 봉사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람 정도이지, 기타 혜택은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런데, 안전교육은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스트레칭도 하고, 여러가지 안전 관련 노하우에 대해 배우는 것들이 봉사자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이었다.

거기에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체계적으로 대안을 배워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 봉사자들도 많았다. 손해보험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람들의 상해나 사망 관련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 안전교육은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크게 느껴진다고 한다. 고객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고 하니, 봉사가 단순히 봉사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영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은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어린이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우리 회사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까지 준다는 점에서 조직원들에게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WRITER 장진숙(문화사업팀 차장)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인텐시브 아트캠프

when
2017년 8월 7일~9일

who
중·고등 장학생 멘티, 대학생 멘토, 임직원 엠버서더

what
청소년 미술영재 지원 사업으로 멘티, 멘토, 엠버서더가 함께하는 아트캠프

3

01

02

01
사운드 아티스트 권병준 작가 수업 '우리만의 소리풍경'

02
회화 작가 박규리 수업 '텍스트와 이미지, 그 경계를 없애다'

나만의 주제를 만들어라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Intensive Art Camp

미술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단순하게 데생을 섬세하게 할 수 있다거나, 컬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사물을 남다르게 보는 눈, 그걸 남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이 뒷받침될 때, 자기만의 세계가 더욱 크게 열리는 것이다. 2017년 교육의 테마인 'Finding yourself'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명하고 내면과 외면을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선정되었다.

2017년 8월 7일~9일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인텐시브 아트캠프는 중·고등 장학생과 대학생 멘토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장학생들은 'Re+Art'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관찰한 뒤, 이를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상반기 수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면, 캠프에서는 그렇게 발견한 다양한 주제들을 재구성해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다. 6년째 한성자동차 드림드림의 프로그래밍을 함께하고 있는 아트그라피의 김아란 팀장은 "드림그림 장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테크닉은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입시미술에 익숙해 가이드 없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주제를 스스로 찾아가고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에 취약하다"며 "이번 캠프의 목표는 주제를 찾아가는 다양한 방식들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1차원적인 결과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2차 창작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업들이 연결되어있다"고 프로그램 기획의도를 밝혔다.

첫 수업으로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시각이 관념에 좌지우지된다

WRITER 김옥진(경영기획팀 대리)

03

04

는 것을 보여준 한경우 작가와 함께 진행되었다. 사진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념적이고 통상적인 개념의 사물이 아니라, 사물이 가진 다양한 형태들을 쪼개거나 합해서 사진 등을 만들어 보았다. 뒤이어 사운드아티스트인 권병준과 함께 소리채집을 통한 사운드 아트 작업을 시작했다. 전문적인 녹음 장비를 들고 곤지암 리조트 곳곳에서 나는 소리들, 혹은 의도적으로 어떤 소리를 만들어서 녹음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조합해 보면서 일상적으로 소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날은, 권병준 작가와 함께 만들어낸 소리를 회화적으로 표현해 그 소리와 잘 어울릴 픽셀아트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졌고, 세 번째 수업은 픽셀과 유사한 개념인 모듈들을 활용한 창작물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회화작가이자 설치미술 작가인 김용관 작가는 레고와 같이 매우 작은 단위의 조각들을 모으고 쌓아서 상상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나 대상을 한성자동차의 엠버서더들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 갔다. 이날 수업의 결과물들은 향후 한성자동차의 전시장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설치 이후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

마지막 수업으로 가죽을 캔버스 삼아 미술 작품을 만드는 캘리박과의 수업을 끝으로 캠프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캠프는 상반기 진행한 '나만의 뮤즈 찾기', '친숙한 이미지들을 재구성해 스토리 만들기'와 같은 수업을 거치면서 차차 아티스트로서의 자의식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03
설치미술가 한경우 수업
'이미지의 재구성, 보는 것과 아는 것의 간극'

04
시각예술가 추미림 수업
'소리, 픽셀로 구현하다'

05
설치미술가 김용관 수업
'PUT TOGETHER'

05

한화예술더하기 여름방학 특별수업

when
2017년 7월 26일

who
초등학생 100여 명과
전통연희집단 THE 광대팀, 미술지도
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강사,
한화 임직원 봉사자 등

what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역사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체험 프로그램

4

01

'한국의 미(美)를 찾아서'

한화예술더하기 여름방학 특별 수업

01
미술 전문강사들이 아동들과
몽유도원도를 창작하고 있다.

02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

02

7월 26일 오전,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평소와 다른 특별한 한화예술더하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한화예술더하기 여름방학 특별 수업이 진행된 무계원은 '몽유도원도'의 탄생 무대가 된 무계정사지(서울 사적지 제22호)를 복원한 곳으로 종로구 부암동에 자리잡고 있다.

무계원에 보관되어 있는 몽유도원도는 '꿈에 도원을 거닐다'라는 뜻으로 안평대군이 꿈에서 복사꽃 핀 마을을 거닐었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안평대군은 자신이 꿈에서 본 도원경을 당대 최고의 화원 안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안견은 단 3일 만에 몽유도원도를 완성했다고 한다.

유서 깊은 공간에 들어선 아이들은 평소와 다른 차분함을 보이며 이리저리 둘러보고 거닐었다. 한옥 툇마루에도 걸터앉고, 안채와 사랑채에도 편안하게 앉자, '전통연희집단 THE 광대'팀의 흥겨운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물놀이 공연 뒤에 사자놀음, 버나놀이, 12발 상모놀이 등이 전개될수록 관객 호응이 뜨거워지고 신명이 더해졌다.

공연에 이어서, 미술 전문강사(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소속)의 지도 아래 아이들과 한화 임직원 봉사자들은 개성 넘치는 몽유도원도를 개별작품 또는 공동작품으로 창작했다. 우선, 안평대군과 안견이라는 인물, 몽유도원도의 창작 배경, 자신이 안견이라면 어떻게 그리고 싶은지 등등 생각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각자 생각한 내용을 연필로 스케치하고 세필로 먹 선을 긋고, 한지의 번지는 성질을 이해하면서 채색했다. 공동작품은 족자형으로, 개별작품은 여름 더위를 식혀줄 용도를 겸해서 부채형으로 만들었다.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창작한 시기가 1447년, 아이들이 몽유도원도를 그려본 올해가 2017년. 57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안견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창작을 해 본 아이들의 소감은 어땠을까?

WRITER 장진숙(문화사업팀 차장)

대전 느리울초등학교 5학년 윤강식, 윤경식 쌍둥이 형제는 "매주 사물놀이 수업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서울에 와서 유명한 조선시대 화가 안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림도 그려보고 좋았어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이번 방학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임직원 봉사자로 함께 참여한 ㈜한화 종합연구소 유성호 씨는 "역사공부도 문화예술교육으로 하니 아이들이 더 흥미로워하는 것 같다. 몽유도원도 원본이 왜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있는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역사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역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도 된 것 같아 좋았다"라고 소감을 덧붙였다.

03~04
아동들은 전통 사물놀이 공연과 몽유도원도 창작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일깨우는 기회를 얻었다.

05
아동들이 그린 몽유도원도를 병풍 액자로 만들어 보았다.

03

04

05

종근당, 오페라 희망 이야기 -키즈오페라

when
2017년 7월 19일

who
전국 20여 곳의 어린이 병동 환아와 보호자들, MIRI오페라단

what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재활을 도움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연

5

01

02

03

01~03
오페라 공연을 매개로 환아와 함께 호흡한 키즈오페라 '안녕~딸꾹!'

오페라 선율로 건네는 희망의 선물

종근당, 오페라 희망 이야기-키즈오페라

상암동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단순한 어린이 병원이 아니다. 교통사고나 큰 질환을 치료받기 위한 어린이 환자가 아니라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어린이들의 재활을 돕고, 그를 통해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이다.

2017년 7월 19일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진행된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키즈오페라'는 병원을 찾은 수많은 환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특별한 음악 선물을 선사했다. 20여 곳의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공연하는 키즈 오페라 <안녕, 딸꾹>은 콤플렉스를 이겨내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면서 새로운 희망도 갖게 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진 작품이다.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병원 1층에 마련된 공연장은 병원 측에서 다목적의 문화공간으로 설립단계에서부터 조성한 공간이었다. 전시,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병원을 찾는 어린이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만든 공간인 만큼,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역대 키즈오페라 사상 가장 많았다. 150명이 훌쩍 넘는 관객 중 어린이 관객을 위해 무대 앞에 커다란 돗자리를 깔아 또래 친구들과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배려가 눈에 띈다.

딸꾹질이라는 콤플렉스를 가진 소녀 '딸꾹이'가 뻐꾸기 자매, 토끼 박사, 마담 래빗 등을 만나며 딸꾹질을 이겨내고 당당히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통해 오랜 꿈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장면 장면 펼쳐질 때마다 큰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공연을 담당한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신숙경 팀장은 "의외로 아이들이 클래식 공연을 잘 보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처음이었다"며 "아이들이 집중하기에 좋은 타이밍과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연이라 더욱 좋았다"고 전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어린이들이 다 같이 어울려 공연을 관람하는 행위를 통해 장애에 대한 경계나 낯섦음은 사라지고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 삶을 살게 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신숙경 팀장의 말은 예술이 가진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WRITER 김옥진(경영기획팀 대리)

01

02

01~03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연주력을 향상시킨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수업 현장

천안과 청주의 청소년들이 만나 하나 된 소리를 만들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2017 음악캠프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기획한 클래식 악기 교육 프로그램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2017 음악캠프'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되었다.

2014년 시작한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청주와 천안지역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클래식 악기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연간 160시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진행한다.

청주지역 청소년들은 관악기를, 천안지역 청소년들은 현악기를 배우고 있어서 이들이 오케스트라로서 완성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합주 연습이 필수. 여름캠프는 연말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현악 앙상블과 관악 앙상블이 함께 합을 맞춰보는 시간이다.

4년을 꾸준히 참여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오랜만의 합주 연습이 매우 순조로웠고, 새로 오케스트라에 합류한 청소년들은 먼저 참여하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해가며 연습에 임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I dreamed a dream', 베르디의 '개선행진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피치카토 폴카' 등 11월 연주회에서 연주될 곡들을 연주했고, 합주가 끝나고는 악기별로 연습을 진행해 합주를 통해 확인했던 부족한 부분을 다시금 채워갔다.

이번 캠프에 다섯 명의 특별 강사가 참여해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선생님들과의 워크숍을 가졌다.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전공자가 아닌 평범한 청소년들의 기본기를 다지는 방법은 무엇인지, 기교가 필요한 곡들은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 등 질문이 쏟아냈다. 꿈의 오케스트라 등 다년간 일반 청소년 음악교육을 진행해온 두 선생님들은 다양한 교육 진행방식을 설명해주었다.

한편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여름캠프에서 실력을 향상한 청소년들은 11월 각 지역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지역사회와 가족, 친구들 앞에서 뽐낼 예정이다.

03

6

한화청소년 오케스트라 2017 음악캠프

when
2017년 8월 8~10일

who
청주·천안 지역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과 전문 음악강사들

what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클래식 음악교육을 통해 악기 연주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으로 하는 음악캠프

WRITER 김옥진(경영기획팀 대리)

01

01~05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초등학생들에게
국악 뮤지컬 공연
관람과 국악 연주 등의
기회를 선물했다.

해금 배우기가 물놀이보다 더 재미있어요

크라운해태 국악캠프

1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연수원 곳곳에 자리잡고 앉아 악기를 연습하고 있다. 한 손에 해금을, 한 손에 활을 쥔 어린이가 락음국악단 연주자들의 지도에 따라 점점 음악에 가까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잡아본 악기의 매력에 빠져 열심히 연습하는 이들은 '크라운해태 국악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이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크라운해태제과는 8월 16~18일 경기도 양주 크라운해태 연수원에서 어린이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크라운해태 국악캠프'를 진행했다.

'크라운해태 국악캠프'는 크라운해태제과 주최, 한국메세나협회 주관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여름방학 아동 문화예술 체험 캠프이다. 2014년 시작해 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경기도 포천의 내촌초등학교, 경남 밀양의 행복한지역아동센터와 초동지역아동센터, 충북 서산 운신초등학교와 동암초등학교, 경기도 의정부 어룡초등학교 등 평소에 문화예술을 접하기 쉽지 않은 지역의 초등학생 13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되었다.

2017년 '크라운해태 국악캠프'는 크라운해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락음국악단과 동락연희단의 국악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배꽃떨어지니 봄이로다'가 준비한 국악 뮤지컬과 교육연극 전문단체인 아트브릿지의 역사연극까지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악 캠프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락음국악단의 '해설이 있는 국악교실'이었다. 동요, 만화영화 주제곡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음악들과 아리랑 등 잘 알려진 우리 가락을 연주해 어린이들에게 악기의 소리를 하나씩 들려주고, 악기의 특성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가야금, 해금, 아쟁, 거문고 등 국악기를 락음국악단의 연주자들로부터 배워보고, 민요와 판소리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 소리의 묘미를 온몸

02

WRITER 김옥진(경영기획팀 대리)

으로 체험했다. 국악기 체험을 참관한 서산 동암초등학교 정영란 선생님은 “아이들이 아쟁이나 해금 같은 국악기를 직접 만져보는 기회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아이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며 “국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체험의 중요성을 전했다.

둘째 날, 사회적기업 ‘배꽃떨어지니 봄이로다’와 퓨전국악밴드 AUX(억스)와 함께 ‘춘향 난봉가’를 공연했다. 판소리 여섯 마당 중 하나인 ‘춘향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판소리를 보다 친숙한 형태로 선사했고, 뮤지컬 배우 배두훈이 함께 공연해 더욱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뒤이어 버나돌리기, 길놀이 등 전통연희를 체험할 수 있는 동락연희단의 ‘전통 연희 교실’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선비의 차림인 갓과 도포를 입고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체험하는 연극, ‘세종, 인재를 뽑다’를 통해 조선시대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작은 말과 함께 교감하는 ‘말 달리자’를 끝으로 크라운해태 국악캠프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단순한 공연 관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전통문화에 보다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국악의 즐거움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라고 꾸준한 지원의 의지를 밝혔다.

03

04

크라운해태, 국악캠프

when
2017년 8월 16~18일

who
경기도 포천·의정부, 경남 밀양, 충북 서산 지역의 초등학생 130여 명과 락음국악단, 동락연희단 등

what
문화예술 소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캠프형 프로그램

05

일상을 예술로 물들이는 아트 챌린저들의 새로운 도전

케이옥션 아트 챌린저

케이옥션과 한국메세나협회는 사회공헌 사업 'CSR Lab'의 일환으로 '아트 챌린저'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 우선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복지사,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를 아트 챌린저로 선발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아트 챌린저들은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함께 새로운 도전들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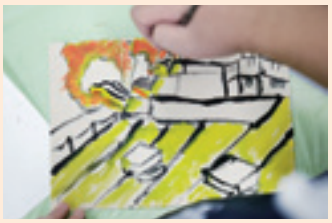
지난 8월 18일, 서울 숭곡초등학교에서는 일상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개성넘치는 색깔을 만들어 보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색깔에 이름은 누가 붙였을까?" "빨간색이라는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빨간색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자 아이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색을 통한 표현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창작 시간에는 물감을 이용해 각자 독창적인 색을 만들어 입체 컬러차트에 색을 입히고, 다양한 패턴의 엽서도 만들어 보았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이 종료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을 정도로 열성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평소에는 수업 중에도 때때로 돌아다니고 옆 친구와 장난도 자주 하는 아이들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했다.

주변의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다!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에는 각자 다른 색상을 만들어낸 것에 모두들 신기해 했고, 다른 친구의 작품에도 큰 흥미를 나타냈다. 일상에서 모티브를 얻어 색깔을 창작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사물들을 앞으로는 자세히 보게 될 것 같다는 소감들도 나왔다.

02



03

01~03
일상 속에서 소재를 찾아 개성적인 표현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가졌다.

서울 숭곡초등학교의 교육복지사 조은화 선생은 "아이들과 함께 방학 기간 중에도 아트 챌린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미술 창작 활동이 병행되니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더 풍성해진 것 같고, 아이들이 자칫 지루한 방학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재미를 가득 채워준 것 같아 뿌듯했다. 특히, 학교로 찾아와 주는 아트 렉처 수업은 물론, 학교별로 전시회 관람이나 외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후원금이 지원된 점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일상 : 예술이 되다. 익숙한 것 새롭게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아트 렉처 프로그램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도 새롭게 바라보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또한 너무 가까이 있어 오히려 멀어지기 쉬운 주제들을 다루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되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일상을 돌아보고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아트 챌린저들의 끝없는 도전을 기대해 본다.

01

WRITER 장진숙(문화사업팀 차장)

8

케이옥션 아트 챌린저

when
2017년 8월 18일

who
숭곡초등학교 아트 챌린저와 아동들

what
교육복지우선학교의 교사와 아동들에게 미술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제5회 메세나 회원음악회

이 시대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6월 1일 오후 8시, 금호아트홀에서 제5회 회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금호아트홀의 시즌 프로그램 중 하나인 <베토벤의 시간 '17'20 - 프랑수아 프레데리크 기>였다. 파리음악원을 졸업한 프랑수아 프 프레데리크 기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풍부한 음색과 독특한 해석으로 연주해 매 공연마다 최고의 리뷰와 평단의 극찬이 끊이지 않는 피아니스트다.

공연 프로그램 역시 베토벤 소나타로만 구성됐는데, '피아노 소나타 제5번 c단조, Op.10-1', '피아노 소나타 제7번 D장조, Op.10-3', '피아노 소나타 제6번 F장조, Op.10-2', '피아노 소나타 제23번 f단조, <열정>, Op.57' 등을 그만의 남다른 해석으로 연주해 더욱 품격있는 공연으로 거듭났다. 이날 공연에는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들 140여 명이 초청되어 관람했으며,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피아니스트의 공연에 화답했다.

'예술 창작 작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사례'

인공지능(AI) 시대의 예술전망

A&B포럼은 기업 내에서 문화예술 사회공헌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강연을 듣는 자리다. 그동안 A&B포럼은 문화예술, 사회공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비롯해, 문화예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인문학 강의, 과학과 미술 등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해왔다.

6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A&B포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테크놀로지과의 장재호 교수가 알파고 등장 이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인 '인공지능(AI) 시대의 예술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이 주제는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예술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하는 시점에 선택된 것이었다. 강연에서 장재호 교수는 예술 창작 작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무엇인지, 인공지능의 오류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고, 이를 통해 예술 소비자들이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SUNWOO YEKWON

소공자에서 피아노계 총아로, 차세대 거장을 예약하다

SUNWOO YEKWON

클래식계의 여러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연주자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들 콩쿠르의 입상자 명단에서 한국 이름의 연주자들을 발견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은 현상이 됐다. 최근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선우예권도 그 한 사람이다.

01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선우예권 ©Ralph Lauer / The Cliburn

선우예권은 어릴 적부터 세계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피아니스트다. 비교적 늦은 9살 무렵에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10대 때 한 해에 2~4차례씩 국제 콩쿠르에 참가해 재능을 인정받았다.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기에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는 예원학교-서울예고-커티스-줄리어드-뉴욕 메네스 음대를 거쳐 현재는 하노버 국립 음대 연주자 과정 중이다.

수많은 콩쿠르에 참가해 입상한 그는 한국 피아니스트 중 주요 국제 콩쿠르 최다 우승자(8회)이기도 하다. 인터라켄 클래식 국제 음악 콩쿠르(2009년),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피아노 캠퍼스 국제 콩쿠르(이상 2012년),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이상 2013년), 방돔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 2014),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2015년) 등에서 우승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콩쿠르는 한때 쇼팽 국제 콩쿠르와 함께 세계 양대 콩쿠르였던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미국인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Van Cliburn, 1934~2013)을 기념하고, 냉전시대였던 당시에 서구권 최고의 피아노 콩쿠르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음색, 음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보여주는 그는 독주뿐만 아니라 실내악에도 높은 경지의 세계를 선보인다. 10대의 나이로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멤버로 중남미 연주 투어를 통해 절찬을 받았고, 세계적인 실내악단인 예루살렘 콰르텟을 비롯해 개리 호프먼, 안네 마리 맥더모트, 마이클 트리 등의 대가들과 함께 연주하기도 했다.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자주 협연 무대를 선보이며 연주 형태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준 그이기 때문에 오는 12월 예술의전당에서의 독주회에서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기대가 크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이후 부쩍 바빠진 일정상 유럽에 머물고 있는 그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얼마 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는데, 그동안 여러 한국인 피아니스트들이 수차례 도전했던 콩쿠르라 감회가 큽니다.

우승자 호명을 받고 한순간 멍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아주 간절히 소망했었고, 그만큼 값진 우승이었기에 제 이름이 불린 직후 흥분과 안도가 교차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죠.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연주 기회들이 어느 콩쿠르보다 체계적이기 때문에(반 클라이번의 고향인 미국 포트워스에서 1962년부터 매 4년마다 열리며, 우승자는 상금 5만 달러와 3년간 미국 전역 순회 연주회와 음반 녹음의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적인 시간이 확 줄어들 만큼 해야 할 일들도 많아진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절실히 원했던 기회이고,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길이 열린 것이라 앞으로 다가올 일정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합니다. 콩쿠르마다 부담감이 상당하지만 연주자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피아노 연주라는 것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음악 자체에 더욱 몰두하려고 합니다.

WRITER 이종철(디자인소호 메세나 편집부)

01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에 독일 뮌헨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지내고 있어요. 올해는 이탈리아·독일·폴란드·미국 등에서 연주를 했고, 8월 말 유니버설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 공식 음반 발매 일정이 있어 잠시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9월부터는 더 바쁜 연주 일정이 될 것 같아요. 10월부터는 국내 연주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데, 대전시향 협연과 금호아트홀 연주, 성남아트센터에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협연, 그리고 12월에 독주회가 예정돼 있어요. 연주 일정이 많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얼마 전에는 폴란드에서 연주회를 마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가서 다른 프로그램을 연주하고, 다음 날 독일로 가서 도착 당일 또 다른 독주 프로그램 연주 후에 한국으로 오는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어요. 점점 비행기를 타는 횟수,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체력적으로 지치기 쉽지요.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최대한 휴식을 취하려 노력합니다. 공항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걸어서 몸이 덜 붓도록 스트레칭을 하고요, 비행기에서도 음악을 듣기보다 이어플러그를 끼고 잠을 더 자려고 노력해요. 다행히 저는 비행기에서 잠을 잘 자는 편이라(웃음). 일정이 없는 사이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스트레스도 풀면서 삶의 여유를 찾는 편입니다.

9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으니 다소 늦은 셈인데, 피아노의 무엇에서 매력을 느꼈나요? 자신에게 피아노는 어떤 존재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두 누나를 따라 동네 피아노학원에 다녔어요. 누나들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다가 저도 호기심 반 부러움 반으로 어머니를 졸라 처음 피아노를 접했죠. 피아노 선생님이 좋게 봐주셔서 어머니에게 계속 피아노를 권했고, 예원학교와 서울예고에서는 김선화·신민자 선생님 아래에서 피아노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커티스 음악원에서는 세이무어 립킨, 줄리어드 대학원에서는 로버트 맥도널드, 메네스 음대에서는 리처드 구드 교수님에게서 배웠으니 아마 저는 선생님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노버 음대에서 배우고 있는 베른트 괴츠케 교수님도 굉장한 분이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들도 좋아했지만, 특히 피아노 레퍼토리에 소중한 아름다운 곡들이 무수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머릿속 상상만으로도 각양각색의 색채감, 입체감 있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피아노란 악기를 통해서 행복감을 얻기도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2

피아니스트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 청중들에게 피아노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제 성향일 수 있는데 음악 외에는 관심 분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우물만 파게 된 것 같고요.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음악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아직 듣고 싶은 음악도, 연주하고 싶은 음악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악을 접할 때 적합한 표현력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흔히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실수들, 가령 자주 연주하는 곡들은 자칫 잘못하면 별다른 생각 없이 연주하기 쉬운데, 아무리 많은 연주를 하고 익숙한 곡이라도 다시 배우는 느낌으로 악보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마음에 어떠한 잔향,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거든요. 각기 소중한 음악들을 공부하고 연주함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고 심정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2월에 예정된 독주회가 상당히 긴장됩니다. 말을 들어보니 12월 20일 공연이 매진되는 바람에 12월 15일 추가 독주회가 편성됐다고 하는데,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들려드리는 독주회라서 더 많은 애정과 고민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해요.

근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작품이나 연주하고 싶은 레퍼토리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작곡가가 있다면 슈베르트예요. 현재로는 슈베르트 4개의 즉흥곡 D.935를 곧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동안 브람스를 선보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내년 프로그램으로 브람스 작품들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금호아트홀 상주 연주가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발전적인 관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기업 또는 개인의 예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가는 물론이고 예술가들에게는 '집안이 좋아서 음악한다'는 편견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많은 연주자 가운데 생활고를 겪어본 분들, 또 어렵게 유학길에 올라 렌트비와 생활비에 버거워하며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수많은 콩쿠르에 도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커리어도 중요했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보다 문화예술 지원이 더 활성화된다면 값진 원석과 같은 예술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술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

04

05

귀국에 앞서 우리 청중들, 롤모델로 삼고 있는 후배들, 그리고 <MECENAT> 독자들에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콩쿠르 우승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음악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악가로서 본질적인 의미를 잃지 않고 진실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02
세계 각지를 다니며 만난 음악 친구들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선우예권이다. ⓒ선우예권

03
"이번 콩쿠르를 마지막 콩쿠르로 생각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무척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는 선우예권 ⓒJeremy Enlos / The Cliburn

04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기념 트로피와 메달을 받는 모습 ⓒSmiley N. Pool / The Cliburn

05
입상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Ralph Lauer / The Cliburn

미래의 음악거장을 키웁니다

KT&G 장학재단 '메세나 음악분야' 장학생 2번째 선발

한국메세나협회는 KT&G 장학재단과 함께 2년째 '메세나 음악분야' 장학사업을 통해 가능성 있는 클래식 음악영재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KT&G장학재단의 예체능 특기자 장학사업의 일환인 '메세나 음악분야' 장학사업은 두각을 나타내는 만 13세~18세의 청소년들을 선발해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추천을 받아 현악과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5명의 청소년을 선정, 1년간 총 2천5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장학금의 규모가 4천5백만 원 증가한 7천만 원으로 기존에 선발된 장학생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음악영재 10명의 밝은 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6월 27일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진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각종 콩쿠르를 통해 가능성을 검증받은 음악영재들 중 최종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남윤 원장과 음악분야 이석준 주임교수, KT&G장학재단 김흥렬 이사장, 한국메세나협회 서현재 사무처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장학 증서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김흥렬 이사장은 지난해 선발된 장학생과 함께 10명의 신규 장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았다.

강지원(바이올린), 남린(바이올린), 용지혜(바이올린), 임세민(비올라), 조예원(첼로), 한예린(첼로), 임윤찬(피아노), 최지호(피아노), 신정환(호른), 유채연(플루트) 등 신규 장학생 10명과 박은중(바이올린), 김가은(첼로), 선고은(피아노), 윤경현(피아노) 등 기존 장학생 4명, 총 14명은 이날 각각 5백만 원의 장학 증서를 수여 받았다.

KT&G 장학재단 김흥렬 이사장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함께 하는 '메세나 음악분야 장학사업'을 통해 예술 분야의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해 한국을 빛낼 예술가로 성장하는 데 보탬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김남윤 원장은 "음악영재에 대한 기업의 도움은 아이들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01

01
KT&G는 한국을 빛낼 음악 영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해 '메세나 음악분야' 장학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WRITER 김옥진(경영기획팀 대리)

2

날것의 예술,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예술공동체

삼성문화재단&로사이드

01

02

03

01
프랑스 파리의 abcd 아르브뤼 갤러리에 소장된 김동현 창작자의 그림

02
장애예술가를 워크숍 강사로 양성하는 장애예술교육 놀이 워크숍

03
장애예술가가 초상화 작품을 그리는 '함께 그리는 풍경'

로사이드는 장애에서 비롯된 의미 없는 낙서로 여겨져 버려지던 예술작업과 장애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창작세계를 소개해오고 있는 비영리 예술단체로, 삼성문화재단은 로사이드의 '함께 그리는 풍경', '1:1 아트링크', '그룹 전시회' 등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지난 4년간 지원해왔다.

최근 2년 로사이드는 디자이너, 기업, 복지기관, 장애인 가족 등 여러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 작업을 연계하여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해 왔으며, 워크숍의 결과물을 디자인 상품 개발 및 마켓 개최를 통해 장애인의 직무개발로 연결하는 '잇-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김동현 창작자의 노트 2권과 대형그림 2점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abcd 아르브뤼 갤러리에 소장되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고, 다가오는 10월 29일에는 일본 후생노동청과 나라현이 주최하는 제17회 전국장애인예술문화제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예술과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 한국의 사례로 초청 받아 발제를 진행한다. 11월에는 일본 나라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장애인예술전 '표현에 머무는 영성'에 한국의 선진 사례로 초청 받아 전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로사이드의 대표 활동인 '함께 그리는 풍경'은 서울시 북부병원과 협약하여 장애가 있는 예술가가 환자들의 얼굴과 이야기를 담은 초상화를 그려 선물하는 프로젝트이다. 북부병원은 재활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다.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자기가 살아온 시간 등을 이야기하고, 로사이드 작가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떠오른 이미지로 초상화를 그린다. 일반 예술가들도 자립이 어려운 오늘날, 자폐와 같은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작가로 성장하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법이다. '함께 그리는 풍경'은 이들이 적게나마 창작비를 받으면서 초상화 작가로 성장할 수 있고 작가로서, 한 개인으로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초상화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예술인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강사로 활동하거나 병원의 공간을 전시하는 등, 장기적으로 장애를 가진 예술인의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9월 28일에는 푸르메재활센터에서 어린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초상화 및 놀이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로사이드라는 단체의 이름이 뜻하듯이 날것의 예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예술가의 모임인 로사이드. 장애예술가들의 작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교감을 통한 소통을 실험하는 예술 공동체 로사이드의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한다.

WRITER 김옥진(경영기획팀 대리)

뜨거운 여름
水로 물들다
물 위의 춤 <소무>

아세코코리아&아트프로젝트보라

지난 7월, '아트프로젝트보라'의 대표작 <소무>가 청계천 CKL 스테이지 무대에 올랐다. 기존 45분에서 60분으로 재구성한 이번 공연은 라이브 드로잉 아티스트 김묵원이 함께 무대에 올라 대미를 장식했다. 이로써 무용과 미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순수 예술의 새로운 소통을 보여주었다.

<소무>는 2015년 초연 이후 매진행렬을 거듭해온 아트프로젝트보라의 대표작이다.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침묵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의 신체를 재조명했다. 여성의 신체를 모티브로 했으며, 불가의 절과 합장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인사법에 신체 일부분과 같은 형상을 접목해 색다른 움직임을 표현했다.

공연이 펼쳐진 무대 바닥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자 여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물로 가득 채웠다. 적삼을 입은 무용수들이 물 위에서 펼치는 움직임은 김재덕이 작곡한 음악과 어우러져 여성성을 최고조에 오르게 했다. 공연의 말미에는 무대 위에 설치한 16평방미터 크기의 실크벽 뒤에서 김묵원 작가가 직접 배경을 그려 나갔다. 그녀의 붓질은 무용수들과 어우러져 안무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했다.

공연을 마친 후 김보라 예술감독은 "관념이나 상징에 머무는 여성의 몸이 아닌 신체로서 존재하는 인간의 몸을 그리고자 했다. 무용수들의 뼈를 시각적으로 확대하여 움직임을 만들었고, 이 움직임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여성 몸 안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아트프로젝트보라는 현대무용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타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했으며,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독창적으로 표현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매 공연마다 조화를 이루는 안무, 음악, 의상, 연출로 국내는 물론 해외 무대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생상드니 페스티벌', 이탈리아 '플로렌스 코리아 필름 페스티벌'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브라질 'ABC Danca 페스티벌', 우루과이 국립극장에 초청돼 무대에 올랐다. 11월에는 홍콩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아트프로젝트보라와 결연을 맺은 아세코코리아는 섬유 전문 기업이다. 주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 원단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국내·외 임가공 공장에서 원단을 생산해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반성장을 지향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용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아트프로젝트보라와 임직원 가족 대상의 무용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문화복지 실현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WRITER 배소윤(A&B팀)

찬란하게 슬픈 우리들의 시간
<울어라 청춘>

바른웨딩&극단 마중물

대학로 선돌소극장에서 27세 동갑내기 3인의 삶을 다룬 <울어라 청춘>이 공연됐다. 제한된 공간, 배제된 시각, 청각만이 허락된 상황에서 일어난 오해를 통해 모든 것이 답답하기만 한 현시대 청춘들의 모습을 그렸다.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이를 하는 재엽, 현지와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성준은 등산 중에 길을 잃고 헤맨다. 산속의 빈집에 성준과 현지가 갇히면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함께 겪은 사건과 갈등을 회상하게 된다.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현실의 오해도 해소된다.

무대 위에는 3개의 기억자형 이동식 벽을 세웠고, 배우 3인은 각자 이 벽을 활용해 시·공간을 넘나들었다. 이 벽은 오해의 시작을 뜻하는 빈집의 고장 난 문이자, 배우 각자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회상의 문이었다. 특히, 재치 있는 대사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연출은 관객들의 몰입을 높이고 끊임없이 웃음 포인트를 자극했다. 본 작품은 2016년에 초연됐으며,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을 지원한 바른웨딩은 2015년에 설립된 웨딩컨설팅 기업으로 업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는 예술단체를 통해 고객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공연 관람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WRITER 배소윤(A&B팀)

푸른 제주를
달리는 문화 트럭,
‘ᄃᆞ르라 트럭 프로젝트’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제주메세나협회

2017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제주메세나협회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은행과 결연을 맺고 제주 전역에서 순회공연을 펼친다. 도내 최초로 대형 트레일러를 이동형 무대로 제작해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는 ‘ᄃᆞ르라 트럭 프로젝트’는 다양한 공연의 장을 마련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제주도민에게 색다른 제주만의 문화를 선사하고,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ᄃᆞ르라 트럭 프로젝트’는 지난 8월 11일 곽지해수욕장에서 4인조 밴드 ‘디오디오’와 프랑스, 일본, 한국 아티스트로 구성된 ‘살거스’의 복합 문화 공연으로 첫 시동을 걸고, 10월 22일까지 매 주말마다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메세나협회 관계자는 “ᄃᆞ르라 트럭이 적극적으로 공연자와 향유자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공연장으로 이끌어 향후 제주 지역의 다양하고 활발한 공연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ᄃᆞ르라 트럭’ 무대는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디오디오, 꽈뜨로보체, 끌로드샤퀄텟, 비아젬, 살거스 등 제주 지역 예술단체의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꾸며지며, 표선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세화벨롱장, 서귀포시 새연교 등 관광지를 비롯해 문화소외 지역, 원도심에서도 펼쳐진다.

WRITER 백민현(A&B팀 대리)

2017 CLIBURN COMPETITION WINNER
mpc
10th ANNIVERSARY
2007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기념
2017년 12월 15일 (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MOC프로덕션
예매 예술의전당 02-580-1300, 인터파크티켓 1544-1555
문의 02-338-3816

신한은행,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한다 **<제9회 신한음악상>**

신한은행은 6월 13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한아트홀에서 '제9회 신한음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신한음악상은 2009년 금융권 최초로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올해는 바이올린 부문 안정민(한국예술종합학교 1년), 피아노 부문 선율(서울예고 2년), 첼로 부문 양상아(서울예고 3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장려상에는 허영서(서울예고 3년, 성악)와 문성우(서울예고 2년, 피아노)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신한은행은 수상자들에게 매년 400만 원씩 4년간 총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 유명 음악학교 마스터클래스(Shinhan Young Artist Challenge)와 2회의 신한아트홀 무료 대관 기회를 부여한다.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도 400만 원의 장학금과 신한아트홀 무료 대관 기회(2회)가 주어진다. 신한음악상 수상자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피아니스트 김규연, 바리톤 김주택, 오보이스트 조은영 등을 비롯해, 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에서 1, 2위를 차지한 박진형(제6회)과 김준호(제4회) 등이 있어 명실공히 순수 국내파 클래식 인재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향한 열린 소리 **'2017 뽀꼬 아 뽀꼬 음악캠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삼성화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특수학교여가활동연구회가 주관하는 장애청소년 음악캠프인 '뽀꼬 아 뽀꼬(poco a poco) 음악캠프'가 7월 26일부터 28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렸다. '소리로 마주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협연을 통한 협동심과 자신감 향상을 목표로 2박 3일 동안 진행됐다. 이번 음악캠프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50명의 음악재능 장애 청소년들이 악기별 지도교수의 전문적인 레슨과 오케스트라 합주 등의 기회를 가졌으며, 1대 1로 결연된 생활 멘토와 함께 다양한 과정활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마지막 날에는 부모, 지인,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청해 파트별 앙상블 연주, 뽀꼬아 뽀꼬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된 비바챔버앙상블의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연주, 참가자 전원이 참여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 연주로 큰 감동을 주었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포스코1%나눔재단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

2015년도부터 시작되어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우영음)>가 9월에 총 4회의 전국 공연을 개최한다. 우영음은 우리나라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인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음악회로, 포스코1%나눔재단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산업단지에서 총 7회의 공연을 개최하면서 국악을 중심으로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에게 고품격 음악회를 선사하여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9월에는 9월 12일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를 시작으로 9월 14일 충북 음성 원남산업단지, 9월 19일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9월 21일 부산 명지녹산산업단지에서 개최된다.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무료공연으로 진행되어 공연 관람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으로 하나 된 축제의 장 **두산인프라코어 <80주년 기념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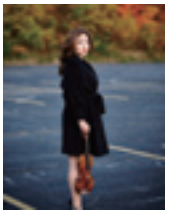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는 6월 8일 인천공장 글로벌 R&D 센터 1층 로비에서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2014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지속 후원하고 있는 국악·클래식 퓨전 그룹인 풀림앙상블과 소프라노 김한나, 가수 이정표 씨가 자리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손동연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하의 장에 다 함께 모인 만큼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프라노 김한나 씨는 'Over the Rainbow', 'Amazing Grace' 등 4곡을, 풀림앙상블은 G20 정상회의에서 연주한 '조이'를 포함한 퓨전음악 8곡을 선보였다. 가수 이정표 씨는 드라마와 영화의 OST를 가야금으로 재해석해 신선함을 자아냈다. 직원들은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며 음악회를 즐겼다.

OCI미술관, 젊은 한국 작가들의 창작·전시 활동을 돕는다 **<YOUNG CREATIVES 선정 작가 6인의 개인전>**

OCI미술관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 '2017 OCI YOUNG CREATIVES' 선정 작가 6인의 개인전을 연이어 개최한다. OCI미술관 1·2층 전시실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손선경, 유쥬쥬, 이요나, 전혜림, 정해민, 최현석(총 6명, 가나다순) 작가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마한 신작을 선보인다.
OCI미술관이 운영하는 OCI YOUNG CREATIVES는 만 35세 이하의 젊은 한국 작가들을 지원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이래, 여덟 해 동안 50여 명의 우수한 작가의 창작활동과 전시를 뒷받침해 왔다. 공개모집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OCI YOUNG CREATIVES 작가에게는 창작지원금 1천만 원이 수여되며, OCI미술관에서 이듬해 개인전을 개최한다.

과거와 현재, 그를 잇는 특별한 트리오
<2017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시리즈

젊은 음악가와 금호아트홀이 손잡고 그들의 음악세계를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시리즈의 2017년 상주음악가 첼리스트 문태국이 오는 10월 12일 선배 상주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함께 특별한 네 번째 공연을 펼친다. 1부에서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삼중주 제2번', 2부에서는 아렌스키의 '피아노 삼중주 제1번'과 드뷔시의 '피아노 삼중주'를 연주한다.
첼리스트 문태국은 2014년 만 20세의 나이로 세계적인 첼리스트 배출의 산실인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 2016년 '야노스 슈타커 상'의 초대 수상자로 선정된 차세대 첼리스트다.



지난 1월 '2017년 금호아트홀 신년음악회'와 4월 '러시안 첼로' 무대를 호평 속에 선보였으며, 8월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과 '첼로 & 바이올린 듀오' 공연에서 매끄러운 호흡을 자랑한 바 있다. 문태국은 이번 트리오 연주 후, 11월 16일 마지막 다섯 번째 '무반주 첼로 소나타' 무대를 통해 제1번, 제5번 그리고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마지막 제6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송강재단, 장학생 음악 콘서트 개최
<제1회 Scholar Music Feast>

송강재단은 8월 11일, 재단 장학생 10여 명이 모여 LS용산타워에서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첫 클래식 콘서트를 가졌다. <제1회 송강 Scholar Music Feast>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용배 추계예술대 교수(前 예술의전당 사장)가 콘서트 가이드를 맡고, 이유진, 김동현, 한여진 등 송강재단 음악 장학생들이 참여해 클래식 협주를 펼쳤다. 김 교수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쇼팽, 차이코프스키, 베토벤 등 음악 거장들의 유명한 곡들이 연주되자 관객들은 큰 호응과 함께 곡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보냈다. 구 이사장은 "음악 영재들이 국내외 콩쿠르나 연주회만이 아닌 일반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송강 Scholar Music Feast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밖에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이 함께 하는 송강음악회를 매월 마지막 화요일마다 LS용산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암웨이미술관, 제53회 전시회 개최
<미술관에 간 그림책>展

한국암웨이가 9월 20일(수)까지 분당 암웨이미술관에서 제53회 <미술관에 간 그림책>展을 개최한다. 암웨이미술관이 여름방학 특별 기획전으로 준비한 이번 전시는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경혜원·김명석·이기훈·이명애·이석구·정진호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정상급 창작 그림책 작가 6명이 참여한다. 동물이나 꿈을 소재로 하는 작품부터 인간관계, 환경문제를 다룬 작품 등 이들 작가들의 미출간 그림책까지 포함하여 60여 점의 원화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 선발된 어린이들의 감성과 목소리를 입힌 오디오 작품해설을 제작해 전시회장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제공된다. 또한, 전시 시작 날인 7월 20일 오후 4시에는 파이토콘서트를 개최해 아카펠라그룹 M.T.M의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다비드 프레이-세종솔로이스츠 협연
<Bach and Beyond>

'제2의 글렌 굴드'라 불리며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피아니스트 다비드 프레이가 세종솔로이스츠와 협연한다. 'Bach and Beyond'라는 부제를 가진 이번 공연에서는 바흐의 ; 키보드 협주곡' 두 곡과 스트라빈스키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라장조-<바젤 협주곡>' 멘델스존의 '현악 교향곡 제13번 다단조' 등의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다비드 프레이는 '동세대 중 가장 감동적이고 독창적인 바흐 연주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2009년 독일 에코 클래식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세계를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미국 CNN이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라고 극찬한 바 있는 세종솔로이스츠는 1994년 강효 줄리어드대학 교수에 의해 한국을 비롯한 8개국 출신 최정상의 젊은 연주자로 창설된 현악 오케스트라다. 지금까지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500여 회의 연주회를 가져왔다.

마임으로 말없이 말 걸기
현대백화점 & 춘천마임축제 콜라보 공연

현대백화점이 지역 순수예술축제와 국내 최초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했다.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 백화점 전관 테마 행사 '팝업쇼'에 맞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비롯한 총 8개 점에서는 춘천마임축제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1일 6회씩 총 48회 선보여졌다.
이번 공연은 대화로 공감이 어려운 현대인에게 말없이 이미지를 전하는 마임 장르의 특징을 컨셉으로 창작되었다. 백화점 곳곳을 다니며 고객과 함께 즐기는 공간 이동형 마임 퍼포먼스 <마네킹 일루션>, 클래식과 마임·현대무용의 콜라보 공연, 마임 광대의 서커스 공연, 가족 동반 고객들을 위한 버블 공연과 마리오네트 공연 등을 통해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은 평소 보기 힘든 마임 예술을 도심에서 즐길 수 있었다.
세계 3대 마임축제로 꼽히는 춘천마임축제와 현대백화점과의 협업은 지역예술축제의 외연을 확장하고 기업의 문화 공헌 및 문화 마케팅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먼 레브레히트 지음, 장호연 번역 | 마티

클래식 음반 세계의 끝

매 순간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는 요즘, 한때 기세등등하던 무엇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진부하기까지 하다. '클래식의 죽음' 역시 온갖 죽음 앞에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거나 과장된 수사로 치부되기 일쑤다. 클래식, 더 정확히 클래식 음반(그리고 음반 산업)이 스틱스의 강(Styx River;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넜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 최대의 음반사 중 하나였던 EMI가 소니와 유니버설, 워너뮤직에게 사업부별로 분할되어 인수됐고, 세계적 권위의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의 한국판은 2009년 2월호를 마지막으로 기약 없는 휴간에 들어갔다. 음반 산업 전체로 시야를 옮기면 사태는 더 심각하다. CD는 패키지 미디어의 마지막 형태가 되었고, 굴지의 레코드 회사들이 공CD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음반 떨이 판매에 나선 지 한참이다(역대 최고의 연주들이 수록된 베토벤 전집 87장을 5만 원에 살 수 있다). 단 한 번도 염가 발매되지 않았던 클래식의 황제 카라얀의 음반들도 예외가 아니다. 클래식 음반의 죽음을 알리는 말은 예언이나 선고가 아니라, 부고다.

세계적인 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의 <클래식 음반세계의 끝(2009년 번역 출판된 <클래식, 그 은밀한 삶과 치욕스런 죽음>의 개정판)>은 바로 이 죽음에 바치는 부고이다. 저자는 과거의 영광을 아쉬워하며 비통해하지도 않고 뻔한 죽음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는다. 잘 쓴 부고가 고인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잘 정리해 보여주듯이, 저자는 클래식 음악 100년을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려 보인다. 1부는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음반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내부인만이 전할 수 있는 뒷담화로 가득하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음반의 바다에서 불멸의 음반 100장과 최악의 음반 20장을 골라낸다. 시중의 여러 음반 가이드처럼 저자는 작곡가별, 명곡별, 연주가별로 음반을 분류하지 않는다. 음반과 녹음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꼽은 100장의 음반 이야기는 지난 100년 동안 클래식 음악과 음반이 거둔 성취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최악의 음반 20'일 것이다. 애써 꼽아볼 가치도 없는 쓰레기 음반이 아닌, '좋은 의도로 기획되었고, 최고의 연주자들이 참여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애초의 목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를 낳은 음반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일 것이다.

"누구도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 모든 것은 끝이 있게 마련,
····· 마감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하할 만한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어떤 시인이 말했듯이 ·····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 펑 하는 충격과 함께 갑작스레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은은하게 비치는 촛불이 ····· 서서히 꺼지듯 그렇게 사라진다."

WRITER 이종철(디자인소호 메세나 편집부)

September 9

<무민원화전>
9.2~11.26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진은숙은 세계적 페스티벌 및 음악단체는 물론 이르캄핀란드의 위대한 화가 토베 얀손이 탄생시킨 '무민'의 아름다운 원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민원화전>이 국내 최초로 개막한다. 얀손이 직접 그린 원화부터 무민 저작권사가 소장한 미공개 작품까지 70여 년의 연대기가 한데 펼쳐진다. 이번 전시에는 얀손의 조카인 소피아 얀손, 핀란드 탐페레무민박물관 큐레이터 니나 라띠넨, 쿠리어(작품안전관리원), 린다 엘리자베스, 노루페인트색채연구소가 큐레이션에 함께 참여해 완성도를 높인다.

<20세기 건담기建談記>
9.5~9.30 / 두산아트센터
<20세기 건담기建談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성기웅이 지난 10여 년간 선보이고 있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깃븐우리절믄날>, <소설가 구보씨와 경성사람들> 등 구보 박태원과 이상을 다룬 연작이다. 작품 제목은 실제 구보 박태원과 이상이 자신들을 건담가(말로 많이 떠들어대는 사람)임을 자처하며 재미난 입담으로 주변 문학인들을 웃기고 다녔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옛 서울 사투리와 일본어, 영어, 에스페란토 등 다양한 언어적 유희와 배우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해 관객들에게 청각적 재미를 전할 예정이다.

PLASTIC FANTASTIC: <상상 사용법>
9.14~3.4 / 디뮤지엄
이 전시는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불리는 플라스틱이 일상으로 들어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다채롭게 변화시킨 마법 같은 여정을 보여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열정 넘치는 40여 명의 세계적인 크리에이터들이 탄생시킨 2,700여 점의 제품, 가구, 조명, 그래픽, 사진 등을 총망라한다. 특히 이탈리안 디자인을 대표하는 카르텔(Kartell)과 디자인 거장들의 긴밀한 협업을 살펴봄으로써 이탈리아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과감한 감각을 느껴볼 수 있다.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청춘가악>
9.16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신진 연주자들의 끼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지난 7월 30세 이하의 국악 전공 지휘, 작곡,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협연자를 공개모집했으며, 총 70여 팀의 지원자 중 총 7명(팀)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개성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가득한 철현금, 소금, 해금, 거문고, 연희, 민요 등 연주자들이 서울시청소년국악단과 함께 협연하며 각기 다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OCI YOUNG CREATIVES
- <최현석·이요나 개인전>
9.21~10. 20 / OCI미술관
OCI미술관은 7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2017 OCI YOUNG CREATIVES 선정 작가 6인의 개인전을 연달아 개최한다. OCI미술관 1층 및 2층 전시실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손선경, 유주쥬, 이요나, 전혜림, 정해민, 최현석(총 6명, 가나다순) 작가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마한 신작을 선보인다.

October 10

제20회 <서울세계무용축제>
10.9~10.29 / 아르코예술극장 등 서울시내 주요 공연장
'대한민국 무용계의 국제적 안목은 시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년을 맞이한 시댄스는 올해부터 댄스 프리미엄, 댄스 모자이크, 댄스 플랫폼이라는 3가지 테마로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국제적 수준의 콜렉션, 전 세계 무용의 경향과 다양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와
마티아스 괴르네
10.13~10.14 / 롯데콘서트홀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와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인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불멸의 열정을 표현하고 <발퀴레>의 마지막 장면에서 감정의 극한까지 내몰린 신에 대한 압도적 묘사를 통해 거듭 바그너의 힘 앞에 복종을 표할 것이다. 고조된 분위기는 이후 집시풍 춤곡이 있는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제1번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 쇤베르크의 생기 넘치는 오케스트라 편곡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연극 <옥상 밭 고추는 왜>
10.13~10.29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옥상 밭 고추는 왜>는 통찰력 있는 해석으로 모던하고 감각적인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대가 김광보 연출과 <여기가 집이다>, <환도열차>, <햇빛샤워> 등 한국적 정서의 탐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타고난 이야기꾼 장우재 작가가 <악당의 조건>(2006) 이후 11년 만에 재회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어느 집의 옥상 텃밭 고추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도덕과 윤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투영한다.

연극 <라빠르트망>
10.18~11.5 / LG아트센터
<라빠르트망>은 뱅상 카셀과 모니카 벨루치가 출연해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프랑스 영화 <라빠르트망>을 무대 위로 옮긴 작품이다. 고선웅은 "<라빠르트망>은 내가 사랑할 때, 나를 사랑했던 누군가의 이야기"라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어긋나는 이 시대의 복잡한 사랑의 의미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 되짚어 보고 싶었다"라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스티븐 허프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1번
10.20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거장 지휘자 바실리 시나이스키는 모스크바의 전설적인 볼쇼이 극장을 이끌었던 러시아 음악계의 강자다.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는 음악계의 경이로운 존재로, 레이저처럼 한 치 오차도 없는 연주와 지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다. 두 명장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협연하며,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비창>과 슈레커의 서곡 <에케하르트>를 연주할 예정이다.

November 11

아모레퍼시픽과 함께하는
아르스 노바 III <관현악 콘서트: 모든 것은 말러에서 시작되었다>
11.3 / 롯데콘서트홀
지휘자 티에리 피셔와 한국계 독일인 바이올리니스트 비비아네 하그너는 말러의 1888년 작품인 <장송곡>을 시작으로 베르크의 3개의 관현악곡을 연주한다. 뒤이어 덴마크의 '소리 마법사'라 불리는 아브라함센이 정교한 조각들을 모아 만든 <신세계>를 감상하며, 스웨덴 작곡가 힐보리가 쓴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아시아 초연)을 들려줄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하는 아르스 노바 IV <실내악 콘서트: 퓨투리티 박사!>
11.8 / 세종체임버홀
한스 첸더는 유희적이면서도 인상주의적인 드뷔시의 전주곡들을 확장하고 재창조하는 아티스트이고, 작곡가 베른트 리하르트 도이치는 소설가 필립 K 딕의 상상 속 미래로 무질서한 여행으로 청중을 이끈다. 히치콕 영화의 악보를 연상시키는 음악과 경보 벨소리, 오스트리아의 맥주창고 같은 세계가 표현된다. 이 연주회에서는 한국 태생 작곡가 이규림의 신작이 세계 초연된다.

실내악 시리즈 6:
<토마스 체헤트마이어와 친구들>
11.12 / IBK챔버홀
바이올리니스트 토마스 체헤트마이어와 그가 속한 사중주단은 '황홀한 수준의 음악적 통찰력과 표현적 자유'를 가졌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공연에서 그는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팔중주를 위한 2개의 소품'과 베토벤의 칠중주, 윤이상의 오보에 사중주를 연주한다. 그는 상이한 개성을 가진 작품들의 해석을 통해 서울시향 단원들과 함께 통찰력과 예술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마스 체헤트마이어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11.17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토마스 체헤트마이어는 지휘자로서나 바이올리니스트로서나 모든 음악가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티스트다. 이날 공연에서 그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을 연주할 계획이다.

<동화>
11.22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랑스 보르도아키텐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지낸 지휘자 크와메 라이언이 라벨의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를 통해 중세 스페인으로의 상상 여행을 이끌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하프 수석 마리피에르 랑글라메는 히나스테라의 <라틴풍 하프 협주곡>을 통해 강렬한 선율과 댄스 리듬의 진수를 선보인다.

김선욱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11.30~12.1 / 롯데콘서트홀
칼 닐센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작곡한 교향곡 제4번 <불멸>은 소멸시킬 수 없는 에너지와 긍정적 정신을 담아낸 작품으로, 라티 교향악단과 미국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핀란드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가 작품의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ON MECENAT MEMBERS LIST

회장사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사
경남스틸
교보생명보험
(주)노루홀딩스
동성코퍼레이션
동일방직
벽산엔지니어링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삼양홀딩스
설원량문화재단
세아제강
(주)유니드
일신방직
종근당
코오롱그룹
크라운 해태제과
풍산그룹
한화갤러리아
현대해상화재보험
휠라코리아

이사사
고려당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주)두산
디자인하우스
사라
(주)신세계
이건홀딩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파라다이스그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효성
한성자동차
POSCO
SK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회
LG연암문화재단

회원사
가나아트갤러리
간삼건축
강원랜드
경남은행
공간종합건축사무소
광주요
금융투자협회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타이어
금호홀딩스
기업은행
김영사
나라삼양감속기
나라통상(주)
(주)나우피플
네이버문화재단
네이처스훼밀리코리아
(주)노루비케미칼
(주)노루오토코팅
(주)노루페인트
녹십자
뉴서울 컨트리클럽
뉴스킨 코리아(주)
뉴욕제과
다보성고미술전시관
(주)다진
대림산업
대상
대상문화재단
대성산업가스
대신증권
대우건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제분
(주)대한항공
더페이스샵코리아
도서출판 '삶과 꿈'
동서식품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출판
동일FnG(주)
두리비전
두산 산업차량(주)
두산건설
두산엔진(주)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렌터카
롯데문화재단
롯데백화점
르노삼성자동차
(주)맥스무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모나미
목천김정식문화재단
문화유산국민신탁
미디어윌
미래에셋대우
법률사무소 C&B
베이글카페
보령제약(주)
본아이에프(주)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브레드가든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삼양인터내셔날
삼익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주)삼화에프앤에프
삼환기업
상암커뮤니케이션즈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기획
서울옥션
(주)성도GL
세일ENS
세화예술문화재단
소니코리아
(재)송원문화재단
(주)스파크인터내쇼날
신라교역
신성씨에스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시아나IDT(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아시아나항공
아이엔지생명
(주)아이피케이
(주)에스원
영앤잎섬 주식회사
오리콤
오비맥주 주식회사
올림푸스한국(주)
와이에스케이미디어
우리종합금융
(주)우진
우진건설(주)
원마운트
원암문화재단
윈포시스(주)
유안타증권
유중아트센터
이건산업
인산죽염 주식회사
인터파크 큐브릿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재단법인 송강재단
제우인베스트먼트(주)
제일기획
조선호텔
조은시스템
종이문화재단
주식회사 차오름에프앤비
지앤히어링코리아
청림출판
카카오
컨슈머타임스
케이옥션
코리아골프앤아트빌리지
코카콜라음료
크레디아 인터내셔널
(주)클라우드나인마케팅
태영건설
퍼시스
포스코ICT
프라임개발
필립모리스
하나은행
(사)한국FPSB
한국GM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주식회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암웨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력공사
한맥도시개발
한미회계법인
한빛문화재단
한세실업
(주)한진
한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현대차정몽구재단
(주)호텔롯데
(주)호텔롯데 면세점
호텔신라
홈플러스
환경관리 주식회사
휴맥스
BMW코리아(주)
BNK 부산은행
CJ문화재단
GS칼텍스재단
(주)HK
(재)KBS교향악단
KB국민은행
KDB생명
KT
KT&G
LG생활건강
LG전자
LG화학
LH
LMS
OCI
SK건설
SK네트웍스
SK에너지
SK증권
SK텔레콤
SK해운
TCC동양

NEW MEMBER

현대해상

현대해상화재보험은 1955년 3월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보험업에 진출했다. 이후, 손해보험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해상,화재,자동차,특종,장기,연금 및 퇴직보험 등 손해보험 전 부문에 걸쳐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현대해상은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보상서비스 등 모든 경영활동 중심에 고객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고객과 주주, 임직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Mercedes Selection 1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닉
그 마지막 여정

11.19.SUN.5pm
슈트라우스 돈 후안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랑랑 협연)
브람스 교향곡 4번

11.20.MON.8pm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진은숙 위촉곡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

BERLINER PHILHARMONIKER
SIR SIMON RATTLE

2017.11.19-2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금호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 | **주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협찬**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R석 45만원, S석 39만원, A석 28만원, B석 17만원, C석 7만원 | **공연문의**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02)6303-1977

BERLINER PHILHARMONIKER
Union Partner Deutsche Bank